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工業組合令의 公布

一

待望하던 朝鮮工業組合令은 八月一日附制令第二十七號로서 公布케되엇다. 朝鮮은 元來 農本主義로서 近年 大資本進出로 工業이 勃興되엇고 再昨年十月에 열린『朝鮮産業經濟調査會』를 機로『農業朝鮮에서 工業朝鮮』으로 새로운 轉換이 시작되엇섯지만 아직은 朝鮮의 工業이란 發展途上에 잇다. 試하야 昭和十一年度의 朝鮮産業總生産額을 보면 二十三億三千餘萬圓中 工産額은 三分一未滿인 七億三千萬圓에 不過하야 依然農業生産이 主宗이되고잇다. 農工併進이 理想이데다가 特히 支那事變을 機로한 大陸政策遂行上 國防經濟의 前線에서잇는 朝鮮으로서 工業의 飛躍的發展이 必要함은 勿論이오 工業勃興에는 中小工業의 健全한發達이 絶對的 條件이되는것은 다시말할것도 업는 此際에 多年의 懸案이던 工業組合令의 公布를 보게된것은 慶賀할일이다.

二

近時大資本投下에依한大工業─紡織工業을先驅로 化學工業, 窯業工業, 機械器具工業等이 朝鮮의工業條件有利로 雨後竹筍가티新設, 擴張되려이지만 昭和十一年의工産額을工場別로보면 官營을含한工場生産은 五億圓, 家內工業이二億三千萬圓으로서 工場中에는中小工場이 絶對多數인것과 家內工業이 大工業進出과 並行하야 一四%씩 增加되는點을보면 中小工業이占한 地位가 決코 적지안흘뿐아니라 將來도 中小工業이 發展되어야만 工業의全面的發展과 堅實性을 期待할수잇고特히 時局重壓에 그救濟策이 緊急事로 보이는이때인만큼 中小工業의 改良發達을 圖謀함으로써 主要한 目的을삼는 本令의 公布는 그運用의 適切과 効果를期待치 아니할수업다.

三

中小工業은 平時에잇서서도設備不充分으로 因한製品粗惡, 原料大量購入難, 物的擔保不足에因한 資金融通難等 의 여러가지 不利한條件미테 呻吟하야 大資本發展에좃차가지못하고 날로 衰退해감으로 本令은이것을 解決키爲하야 同種의工業者로서 組合을組織케하야 各自의힘을 모아가지고 共同으로設備, 購入, 販賣, 檢査, 統制, 金融等 諸過程을經營함에依하야 個個의 貧弱한힘을 크게해가지고 그改良發達을 圖케함을 目的하고 이에 必要한 組合統制及 保護規定을 全文九十六條에 亘하야 制定한것이다 本令이 內地의 工業組合法에比하야 다른點은 金組關係로 工業組合의 貯金受入을 認치안흔것, 監督을 嚴重케 하기爲하야 理事長의任免에 對하야 當局의 認可를要케한것, 統制命令을 確保키爲하야 工場의 新設, 擴張을 許可制로한것等은 朝鮮의 實情에 適合토록 한것이지만 實際運用에잇서서 遺漏업기를 期하여야할것이다.

四

本令實行에 關한府令과 施行細則은 追後發布되려니와 制度가 아무리조하도 業者自體가 組合精神을 體得하고 技術上信用을 向上시키는데 努力지아니하면 안될것이오 또本令公布에 當하야 業者의 覺醒과 奮起를 希望하는바이다.

工五人以上을가진 工場五千九百에依한 中小工業의 十六萬八千人의 從業員(其中 여 工場法에依한 從業員의 保護를) 五十四萬八千人)을 算하야 工場法이잇서야만 名實共히 健全한 ... 本令 工業發展의 目的을 達成할수잇게 되기를 바라는同時 工場法의 實施도 促進하야 力說하는바이다.

越境한蘇聯軍擊退
今曉張鼓峰占領
數日來로累次不法越境하야射擊中을
蘇軍은後退後도砲擊

【朝鮮軍報道班發表】 張鼓峯方面의 情勢가 鎭靜된때문에 我軍은 第一線警備를 緩和하엿던바 蘇聯은 이機會를타서 再昨 二十九日午前九時半 沙草峯南方高地附近에서 分明히 越境하여와서 陣地構築에 着手한때문에 我第一線防衛部隊는 이를 驅逐하고 衝突을 避하고저 舊位置로 後退하엿던바 午後四時頃 再次 挑戰攻擊을 加하여 왓스므로 이를擊退하고 爾後對峙中이엿는데 三十日夜半 蘇軍은 때마침 濃霧가낀틈을타서 沙草峯附近部隊에다 戰車數臺를加하고 또 張鼓峯占據部隊와 멋長池(사잔湖) 東方及 東南方에엿는 砲兵의 大大的掩護射擊下에 夜襲하여왓다 我軍은 거듭하는 敵의 不法挑戰으로 不得已 決然이에 反擊을하야 三十一日 午前五時四十分에 張鼓峯을 同六時 沙草峯南方高地帶를 占領하고 完全히 蘇軍을 戰場으로부터 驅逐하엿다 그리고 午前七時 執拗하게도 白石洞方面으로부터 古城部落으로 向하야 時時로 砲擊을하고잇다

蘇聯側死傷二百餘
戰車、山砲等도鹵獲

【朝鮮軍報道班發表】 二十九日沙草峯附近戰鬪에서 敵에게 준損害는 約二十名이며 또三十日夜半부터 三十一日朝사이에 張鼓峰及沙草峰附近戰鬪에서 敵에게 준損害는如左하다

死傷者 二百名程度(戰傷遺棄死體만約三十) 鹵獲兵器戰車 十一、山砲 二 速射砲一 自動小銃 二 機關銃 二 防毒面 二

我軍의 損害는 將校以下相當한數에 達하는모양인데 目下調査中이다

不法挑戰反覆을
自重監視타가擊破
朝鮮軍岩崎報道班長談

【朝鮮軍岩崎報道班長談】 今月十一日以來 張鼓峰附近에서의 蘇軍의不法占據에 依하야 國境一帶에는 暗雲이 低迷하고잇던바 皇軍은 大局的見地에서 隱忍自重彼方의 行動을監視中이엿다 그런데 乘勢한蘇軍은 皇軍의平和的態度와警備의 不完全함을타서 二十九日以來 屢次不法한 挑戰을反復하며 特히 三十日夜半에는 張鼓峰과 밋沙草峰占據部隊에게戰車數臺와砲兵을加하야 攻擊하여왓다 이攻擊이 最初부터 相當히正確한點으로 보아今番行動은彼의計畫的行爲인것이 明白하야 非는 全然彼方에잇는것이 明瞭하다 平和를愛好하는한편 皇道宣布의 聖業을 實踐하는皇軍으로서 武威를失치안흐나 되면 一死報國疾風枯葉을捲쓰는 氣槪로서무엇이든지 擊破하고야마는것이다

關東軍當局發表

【新京三十一日發同盟】 關東軍午前十一時三十分發表=압서張鼓峰北方約千五百米 滿洲國領內高地에 不法越境하야 陣地를 構築中이던 蘇聯部隊는 三十日夜襲을 敢行하야 我前哨陣地로부터 射擊을하는同時에 戰車를가지고 少數의 我方監視隊에 對하야 攻擊하여왓스므로 東側으로撤退하고 今朝六時마치내 張鼓峰及 沙草峰附近一帶의 滿洲國領土를回復하엿다 蘇聯兵은 此間 白石附近으로부터 朝鮮領古城及慶山으로 向하야 砲擊을 하여왓다 我軍에서는 相當한 損害가 잇는것가티 觀測된다.

訪歐修好經濟使節團發程

【新京三十日發同盟】 滿洲國訪歐修好經濟使節團長以下一行은 三十日 午前九時發列車로出發하야 大連으로向하엿는데 驛頭에는 張國務總理 各部大臣及 磯谷中將等 日滿官民多數의 餞送이잇섯다

回敎徒對佛敎徒
軋轢暴動化

【新嘉坡三十日發同盟】 三十日報道에依하면 지난二十六日以來 不穩의形勢를 보여오던 蘭貢의回敎徒對佛敎徒의 軋轢은 二十九日에이르러 드디어 大暴動化하야 出動한 英軍隊와 各所에서 衝突하야 蘭貢市는 修羅場化하엿다 그래서 二十六日以來 回敎徒와 佛敎徒와 의 一段惡化하야 殺人、掠奪、放火는 어미市內各所에서 小衝突을 二十八日부터 事件는 閣所에일어나고 市內各所警戒하고잇섯는데

對滿洲、關東州輸出入
爲替手續簡易化
今後一般取引의便利圖謀

總督府에서는 일적이 對滿、對關東州輸出入에 對하야 爲替管理上 許可報告等을 特別히 認定하기로되어 八月一日附府令第百五十二號로써 公布하기로되엿다 即 今番改正에依하야 對滿、對關東州의 取引은 手續의簡易化와 許可의迅速을 圖하고저 朝鮮總督의 許可를要하던것을 稅關長이 許可하기로되엿스므로 對滿、關東州와의 取引은 매우 便利하게되엿다 改正要點은如左하다

一、朝鮮으로부터 滿洲國又는 關東州又는 貨物輸出에 關東州又는 滿洲國에의 輸出貨物代金을 朝鮮으로부터 朝鮮에의 輸入貨物의 代金決濟、無爲替輸入 及 無爲替輸出의 許可를 朝鮮銀行을 經由하야 許可申請書는 朝鮮總督의 許可를 要함

二、無爲替輸出 無爲替輸入及代金決濟의 許可申請書는 原則으로 出貨物輸出又는 輸入申告時申

三、信用狀取得許可申請書는 稅關에 提出하야 許可를 受할것

四、無爲替輸入貨物代金決濟許可申請書又는 代金支拂許可申請書는 無爲替輸出入 貨物의輸出又는 輸入申告時에 稅關에提出

五、特別規定에 依하야 許可를 受한 取引又는行爲에 關하야 提出하게될報告書中 輸出報告及輸入報告書는 그貨物의輸出又는 輸入申告時 稅關에提出

六、特例에依한 許可申請又는報告에關하야特別手續을 必要로

七、申請書、報告書의 書式은從來와가름

八、그리고左記物品을 輸入하는 境遇에는 特例의適用이 업스므로從來대로 朝鮮總督의許可를受하여야한다

代用品 實棉 棉花 實麻 亞麻 生가리바차 上記二者의 바카파이버ー 羊毛 山羊毛 駱駝毛 綿羊毛 獸毛 鐵鑛 鉛鑛 亞鉛鑛 니켈鑛 安知母尼鑛 水銀 白金 銅 鉛 亞鉛 安知母尼 硫化安知母尼 眞鍮 靑銅 木材 牛皮 水牛皮 豚皮 生이더안

四川省國防建設에
大規模로進行中
國民政府與地遁入前途에對해
蔣과會談後王纘緒의豪語

【上海三十日發同盟】 龍雲 王纘緒等雲南 四川軍閥을 漢口로召集하고 國府與地遁入後의對策을協議한蔣介石은 行政各機關을八月九日까지에 完了하고저 漢口脫出準備를 進行하고잇는바 蔣委員長과 會談한結果 今後의國防問題는 全般的으로決定을보앗다 特히四川省의 國防建設計畫은 大規模의것이어서今後의 國家民族盛衰에 重大關係가 잇는때문에 全力을다하야 이를實現할것을 誓約하엿다 그리고 이것을 實現하기爲하야 一委員會를 組織하고 全面的으로 實行케할려인바委員에는 國民政府財政 交通 經濟各部長을 爲始하야 四川省建設廳長을 加하고 委員長에는 中央의 某要人 副委員長에는 四川省 主席이 當하게될러이다 國防事業中 國營以外의것은 四川省 各地方機關及 地方의 金融 社會各團體의 投資經營을 歡迎하는것이로 二、三年後에는 豫想만한收穫을 엇게되리라고 期待하고잇다 또四川軍은 여미 中央의 命으로 指定地로 向하야 出發하엿는데 이에 對하야는 中央軍도 特히 注意하고잇스며 余도 도한應讓한바잇서서 便法을 講究하엿스므로 日本軍이 侵犯하는 省에 對하야는 여하한 苦戰이라도 辭치안흘것이라고 誇하엿다 이에依하면 國民政府의 새로운根據地가될 四川省에 心慘憺하야 中央勢力을 扶植하려하며 또한民衆의 搾取計畫을 進行하고잇는가가 窺知되여 注目을끌고잇다

漢口危機急迫으로
全市는避亂騷動
外國使臣은中旬까지重慶에
租界內避亂民殺到

【上海三十一日發同盟】 外交部를 爲始하야 國民政府行政機關이八月三日까지에 重慶으로移轉하고 在漢口外國使臣도 亦是八月十五日까지 重慶으로到着하도록 特別船舶車輛等準備하는等 各方面에서 漢口退去準備에 熱中하고잇다 그러나 漢口在住外國人은아직 一千名이나되여 三十一日再次 國際列車를 運轉시켜一部의 香港으로 避難케 하기로되엿다 英、佛兩租界도 佛租界와가티 境界線에 土囊을 積하고 鐵條網을 둘러치고 避難民의 殺到와 敗殘兵의 潛入防止策을 講究하며 獨租界도 擴張中이며義勇隊、消防隊도特別히組織하야 將來의混亂에 備하야 非常한緊張狀態이다 平漢線停車場도 避難民收容所로 하기로要求中이라고한다

軍事機關만存置
各機關逃避에奔忙

【上海三十一日發同盟】 漢口로부터의外人側消息에 依하면 國民政府軍事機關은 行政各機關의重慶移轉完了後 暫時漢口에 殘留할것이나 그後는 形勢의 變化에따라 何時든지 江西省으로 遁入할수잇도록 準備를 進行하고잇다

漢口英租界等
警備를强化
鐵條網、鐵門等을急設

【牯嶺三十日發同盟】 三十日 AP電報에依하면 漢口陷落을 目前에 두고 佛國租界當局은 萬一을 豫想하야 租界周圍의 防備强化에 熱中하고잇는바 目下 租界各入口에는 極히 堅固한鐵門을 急設하는一方 租界內外에는 全部 鐵條網을 둘러치고잇다. 또 英國租界住民은三十日 緊急會議를 열고 英租界住民의 財産保護 本軍의 攻擊이 漢口로 集中될境遇에 避難民의 殺到와 敗殘兵의 潛入을 防止하기로되엿다고한다

世界週史

軍使二名射殺
去七月十八日 我方에서 派遣한 軍使二名을 射殺하고저 ...

九江、大湖陷落
...

外相、英大使會談
宇垣外相은 在支英國權益을 ...

蘇聯兵沙草峯에越境
去二十九日午前及 午後二回에 沙草峯南方高地를 蘇聯兵이 又復 不法越境하야 ...

武漢市民에避難命令
...

希臘에叛亂勃發
去二十九日 希臘『크레테』島에서 ...

前駐獨支大使
來月中旬歸國
【伯林三十日發同盟】 前駐獨支那大使程天放은 오는八月十日伯林을出發 九月十五日頃本國에 歸任하기로되엿다

廬山西方一帶의
敵陣地空爆
陸海空軍의活動

【○○基地三十一日發同盟】 三十一日午前十一時頃 我海軍航空隊의 ○○機는 때마츰 廬山西方에 날러 沙河鎭附近의 南方 大天山 馬鞍山 金輪山의 敵有力陣地를 空爆하야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一方 陸軍 航空隊는 午前一時頃 桐城西南方山岳地帶에 集結하는 敗殘의 敵을 空爆하야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帝大改革案의
前途는多難
東大學內에反對意見

各帝國大學刷新을 企圖하는荒木文相의 根本的改革論은 大內敎授問題의 摘發과 關聯하야 東大學內에 非常한 衝動을 주고잇는바 改革論에對한 東大學內의 意見을 綜合하여보면

一、總長 各部長及 敎授의 選擧에 依한 學內의 人事決定이 否認되는 結果 敎授間에 그때그때의 爲政者에 迎合하는 傾向을 釀成하게될 것이며 이가티되여서는 學問의 蘊奧를 攻究하며 國家永遠의 目的을 探求함을 任務로하는 大學敎授의 使命을 喪失하며 大學의 主旨에 反하게된다

一、大學自治는 東大歷代總長 敎授의 衆智를 傾倒해서 完全한 最上의 方法으로 運營되여 온것으로 大內敎授問題의 紛爭가튼것은 大學全體로 보면 瑣事에 不過한것이엇다

一、時代風潮로서 近來 部長官選論이 擡頭되고 잇스나 市町村自治는 嚴然히 存在하여 잇다 國民이 自治에 依賴할수잇는 根據는 大學自治의 存在에 依해서 可能한것이 아닌가

一、法 文 經 各科는 暫時措置하고라도 自然科學의 諸學科에서는 敎授 助敎授의 選任에 當하야 學問의 深淺內容은 師弟關係에 잇는 敎授를 除한다면 그評價는 困難할것이다 從來와가튼 銓衡方法을 一變하면서 一方 學位授與는 選擧로서 行함은 矛盾되지안는가

一、全體로서 今回의 改革論은 學內의 派閥關係와 情實을 除去하게될는지 몰라도 文部省에 希望하는 學內明朗化는 期待할수업게된다

라하야 全面的으로 反對하는空氣가 濃厚하므로 文部省이 希望하는 帝國大學改革은 實現까지에는 相當한 困難이 잇슬것으로 豫想된다 如何間 東大로서는 濱田故京大總長 長與總長의 歸京을 기다려 評議員會를 開催 大學으로서 改革案에 對한 檢討와 審議를 加할것으로 觀測된다

滿洲國對外貿易

【新京三十日發同盟】 滿洲國政府經濟部發表=七月中旬의 對外貿易額은 (單位千圓)

輸出	一八、九〇九
輸入	三一、二二三
入超	一二、三一四

이며 前年同期에 比하야 輸出五百十萬四千圓、輸入千十四萬四千圓이 各各增加되엿다

日曜氣配

◆期米 買物薄인때에 馬越의 買進으로 市勢는 緊張을告하고잇스나 高値買는 警戒되여 底堅

◆株式 警戒氣分이 濃厚한데 利喰賣도 잇섯스나 民市勢步調로 買氣優勢하야 市勢는强含

大新 一五〇 東新 一三三〇
鐘紡 二〇〇 滿業 一五〇

八面鋒

◇山西軍은 遂 孤立狀態。作戰의 山西는모로 主義化인가

◇濃霧! 濃霧! 또 濃霧으로 砲丸(鐵)가되여가는 廣九鐵道를 香港政廳에 實地交涉?

◇香港政廳에서는 엿(飴)장사를버려 노으려는 셈인가

◇廬山의 死命制壓。當年의會議의廬山、避暑의 廬山을 생각할때 宋女史의『센치』가 눈물겨울까 하노메라

今日本紙四面

사랑이란과연어떤것인가

사랑은 ... 三要件을 要하야 세계 또는 우주에 잇서지는 위대한 힘이다 이 사랑이 잇는 곳에 생명이 잇고 광명이 잇는것이다

一、사랑의 근원─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엿다는것뿐아니라 「하나님은 곳 사랑이시라」고 재삼 말하엿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그것이 곳 사랑이라함이다 그런고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하엿다 사람으로서 사랑이 완전치 못하엿고 사람의 ... 업는자는 업는것이니 자기 속에 잇는 사랑의 빛을 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것을 알것이다

二、사랑의 발표─사랑은 자연히 그 발표가 생기는것이다 사랑의 대상을 위하야 무슨 일을 행함으로 사랑의 발표가 되는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저로 말매아마 살게하신것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셧으니 이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야 된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야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야 화목제가 되게하신것이다

三、사랑의 실현─하나님을 본 사람이 업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것을 알수잇는 도리가 잇스니 이는 곳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참 사랑 안에 거하는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야 하나님은 곳 사랑이신 만큼 사랑이 그 안에 완전히 실현될것이다

四、사랑의 완성─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잇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잇스면 사랑은 완성될것이다 그리하야 그 표증은 담대함을 엇는것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업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여좃는다 하엿다 이 사랑은 연분 합하려 씨운 사랑이 아니라 실지의 굿센 사랑이니 이로써 원수까지 사랑하야 악을 이길수 잇는것이다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頭取 林繁藏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他國의旅人宿
朴南申 林響一 懷春 鶯
바람든열폭치마
南一鶯·朴響林·申懷春
落花의꿈 劉鍾燮
花朝月夕 金仁淑
개코가主事 金海松 南一鶯
活動寫眞강짜
콜럼비아 Columbia
異域酒幕의 人生詩! 流浪의 悲戀、黃金、純情의 絶唱!

明八月一日밤부터
劇團豪華船上演
李瑞求作
雪怨草 (설원초)
三幕五場
한女子가 가슴기픈 새인怨恨을 품기爲하야 纖纖玉手로 匕首를 간지 무릇몇해이엇든냐 그리하야 男便의원수 자식의원수를 갑고나서 哀絶悽然하게 부르는노래곳혜 點點히 떨어지는 눈물은 눈물이 안이라 한숨이 섯겐간 피이엿다! 이演劇을보며 全身에 聚膚를깨달을때 百면度의 酷暑도 저버리고 밤밤것지안흐면 안될것이다! 이巨彈名篇이야말로 豪華船에 踊北千里의 遠征의길을 떠나는 最終의선물이다
東洋劇場

八月四日부터四日間
(晝夜三回繼續上映)
名畫鑑賞大會
四日五日 二日間 新しき土 郷愁
六日七日 二日間 新版 未完成交響樂 半島の舞姬
特別幕間 漫談과漫謠 新作發表大會 (晝夜二回) 孫一平 金元浩
特別奉仕料金 十錢均一
於府民館
今夜8時(七月卅一日)
李雲芳作
외로운사람들 四幕
大實劇中인 이演劇은今夜가마즈막 이오니부디今夜만은놋치지 마르소서
晝間映畫(明日부터)
ワーナナショナル社特作『シスコ・キツド』(一名ギャング의 誕生)
Gメンのジエ\ムスキヤグチ鉄\
新興キネマ大東京特作『懐かる故郷』
高野由美 毛利峰子主演
東洋劇場

資源探索의新方向
廢物의愛護觀念强調
最後의一點까지徹底히 애끼도록
主婦의自覺喚起에進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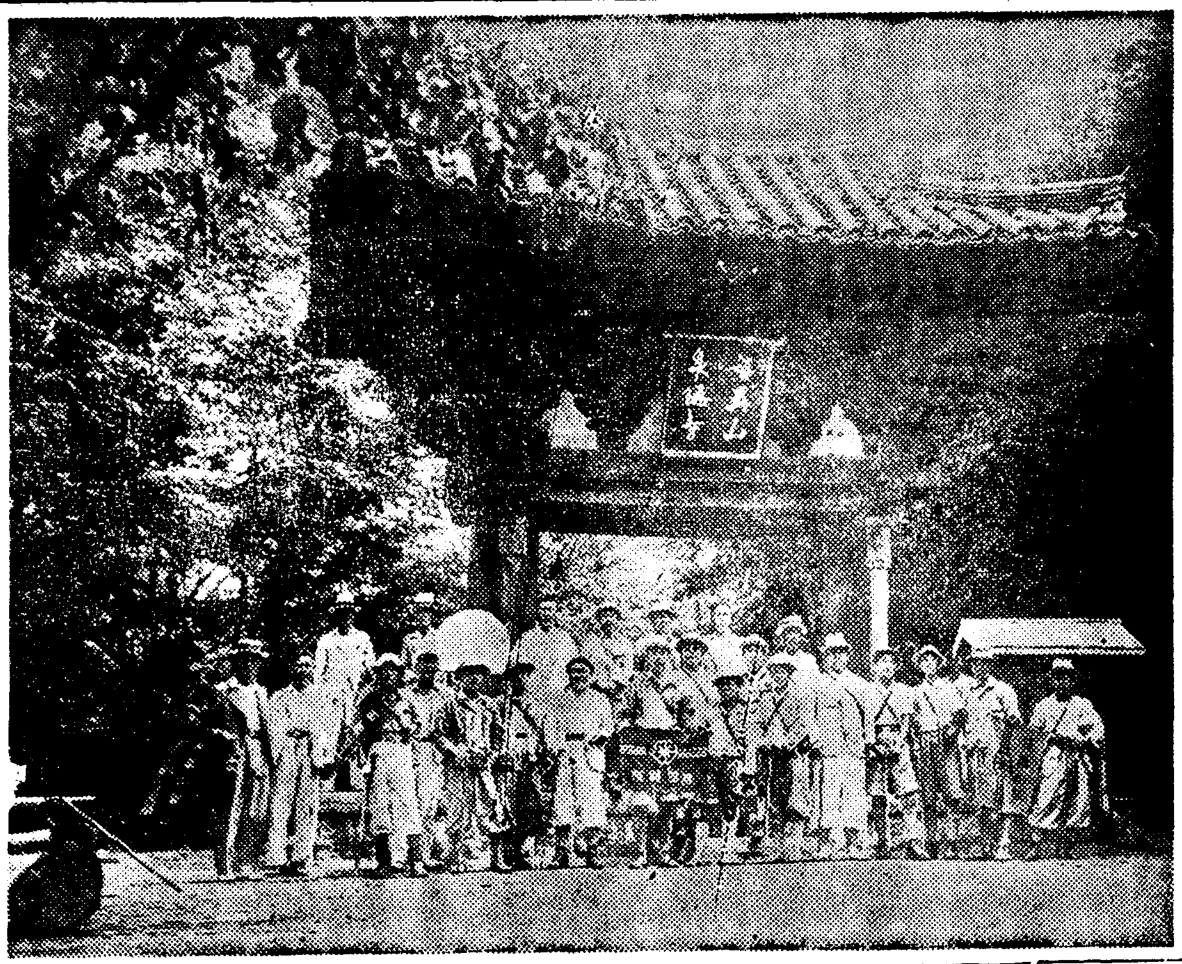
장기전하에 국가자원을 확보키위한 국민의 소비절약운동은 정부의지도하에 각방면으로부터 민중운동이 이러나고잇스나 이 물자의소비절약은 새로히물자를 생산함에한한것이아니라 종래에 폐물이라고하야 쓰지못할것으로버려오든것을 다시새로운물건으로 만들수잇도록함에 더욱뜻이잇는 것이어서 이번총독부에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생활쇄신위원회(生活刷新委員會)에서는 이번에 각방면의 폐물을 회수하되 특히 각가정의 주부들로 동원시켜 아주 버릴 정도의것은 모아두엇다가 팔게하고、또 그러치안코 좀필요한정도의 헌물건은 일정한장소에 모아가지고 서로밧구어쓰던가 서로사고팔도록하려는 안을 세워가지고 머지안허 그실현을보도록 할작정이다 이소비절약의방법이야말로 여러가지로 종래 만들어오든물건을 제한하게된것과 병행하야 소비절약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것으로 웅당조선에도 그러한운동이 잇슬것으로주목되고잇다 즉그방법으로는 一、가정에서 폐물이라 버리게될만한것으로 쇠조각、헌것유리병、넝마 수지、가죽、고무 세루로이드 도부에서 버리는것등의 여덜가지 종류로하고 二、각가정에서 모아가지고 다시각 경찰서관하에잇는 단체등을 동원식히어 사드리도록 하려는것과 三、도각가정에서 쓰다가헐어진 것중에 불필요하게된것으로못벌이며가구 용기등을 떠메고 일정한장소에 모아노코 서로 교환을 하던가 사고팔게하야 어떤물건이라도 쓰다가 중도에 버리는것이 업도록 하려는것이다 이가치하야 소비절약운동을가정경제의 물자절약을 강화하야 그효과를 더크게하려는것이어서 특히 가정생활에 경제관념이적고 또 여유도 적은 조선가정에서는 이점에 일층주의하여야할바로 주의를끌고잇다

死藏金貨에動員令
金貨幣鑄潰規則을公布하고
一日부터朝鮮도實施

금의 총동원운동에 박차를더하야 금화폐의 주궤금지규정(鑄潰禁止規定)의 완화와 국경의 무위체수출(無爲替輸出)의 취체와 회가 외국위체관리법에 의한명령의 개정에따라서 팔월일일부터 조선에서도 실시하기로되엇다 첫재 금화의 절대적인 금지규정을 완화한것은 정부에의금화매각에 편의를 주기로 당분간은 원측으로써 금화의 주궤를 조선은행에 위탁하고 그주궤에의하여서 생기는금과 지금(地金)을 조선은행의 매각에한해서 허가할방침이다 그리하야 금화를 가진사람은 조선은행본점에게 사라고 의뢰하면 은행에서는 한돈쭝에 사원사십전으로 사는 것이다 둘째로 국경의 무위체수출취체는 국경에서 출입이 빈번하야 위체를 취조(取組)함이업서는 성질의것(大正九年法律第五十三號第一條의 物品)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하거나 또는보고를 안해도 괜찬케된것이다

醫療技術者登錄—
勅令案不日審議
學校卒業者雇用規則도同時에

【東京電話同盟】후생성(厚生省)에서는 전시의 의료기술자(醫療技術者)총동원계획(動員計畵)아래 국가총동원법 제이십일조의 규정을 발동시켜 전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부 등록의 칙령은 팔월상순까지에 심의를하게되엇다 이 칙령안은 이미기획원(企劃院)에 회부되어 선중심의하는 중이더니 드디어성안을 어덧다고 하므로 불원간 제일회 국가총동원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심의회 직업부(職業部)에서작성한 학교졸업자 고용규칙위원회의 칙령안도 심의하게 될터이다.



戰線에貯金熱

【開封三十日發同盟】총후국민의 열성은 전선장병을 감격시키바가 적지안커니와 특히 이번에는 국민일반의 봉공저금을 하고잇는것을 안○○부대장은 대원전부에게 총후국민의 열성을 몸소바다 돈을 함부로 쓰지말고 저금하라고 훈시하엿다 그리하야 작금재에 사천오백여원의 저금이 되엿다는데 그중 진기(眞崎)부대의 중촌(中村)군조 등여덜명은 출정이래 밧앗든 급료전부를 저금한것이 요새알려젓다 이부대에서는 아프로 일만원목표로 계속해서 저금할터 이라고한다

訪伊少年團
나포리到着

【나포리三十日發同盟】일이친선(日伊親善)의 사명을 걸머진방이소년단(訪伊少年團)일행은 삼십일 오전 팔시반 복견환(伏見丸)으로 나포리에 도착하엿다

아메리카 경찰등 먼저 도착한 삼도(三島)단장은 일단승선하야 심신면의 단련파함께 일장기를 압세우고 배에내렸다 그리하야 어려리 떠시스트 소년등 남녀다수의 출영속에두나라 소년의 처약수를 한것이다 그다음 일행은 동영시반 떠시스트 전몰장사의 묘지에 화환(花環)을 바치고 영하시부터랑 총독을 방문하는등 여러 땅에서 첫날을 지냇다

沃野千里에穀波萬頃
豊年頌드르며行軍
華嚴寺境內의옛자최를찻고
一路、智異聖峯으로!

【智異山探險隊特電】경성역을떠난 우리탐험일행은 동부판 긴장속에 어느듯 이리(裡里)역 가까이 넓은벌판이 고할엇다 일행은 원기왕성히 자리를 수습코나니 아침다섯시 어제밤 수원(水原)이북에 나리던가랑비도 멈추고 여행하기에는 가장조흔 일기로 둘째아침을 차창에마지한것이다 여섯시못미처 이리역에 도착하매 이리부보지국원과 다수 인사가 역전에서반가히마저주엇다 일행시에 다시 목적지로 해야 전남선(全南線)여수(麗水)행차로옴겨라고 여덜시나되어 모처럼 처회식으로『히노마루』벤또에다 단원들의 비장해온 약간에 (울도나누어 양감을 축하하야 마지안엇다 이러케 한차간에 한식구로 화기애애한중에 서 아침차창으로 비치는 강경、논산(江景、論山)의 평야를에 가득한풍년송(豊年頌)을 눈으로만도 드를수잇섯다 삼례(三禮)한 연화지(蓮花池)에 붉은꽃은 아름답게에 가리워 우리이보히며 그중에주인업는것이 울음서잇는수정(樹亭)과옛기억을 자아내 고할엇서잇다 차는남여 임실(任實)이남원지대를 화살잇하야 춘향(春香)의고향 남원(南原)을빼엇다 모두이상한 감회로 엣춘향의 자최를 그리엇다 이번코ー스에잇서 남원이 종점이 되여잇스매장(張)여장의안내를 못밧든것도 섭섭한일에하나이엿다 일행은 다시남원을뒤로한지 얼마안되여 구례구역(求禮口驛)에 도착하니 푸랏트폼에는 본보구례지국원 일동과 관민유지 여러분이 반가히마저 주엇다 직시로 세대의 자동차에분승하고 일천이백여년의 력사가잇는 천은사(泉隱寺)로 행하얏다 가는길에는 환영하는군중으로 널리덥고 남국의 대밧(竹田)사이를 수노흐며서 동신일시이십오분 천은사 산문에 도착(泉隱寺山門)을 거처보제루에(普濟樓)에 인는데 천은사의 명물 조과(造果)가 잇서청을보든 파실을 맛이게먹엇다. 사내를 배청한후 동 십이시삼십분 울은회정하야 편임청동 주최 환영회에 참가하야 주인측으로 박동호(朴東鎬)씨의 환영사가잇섯고 본단을 대표하야 가술을 헤치노코 정을나누웟다 단장의답사가잇서 주객간 서로 동무시 여섯분의 안내를밧게되엿 웃지 우리일행은 원기잇게 화엄사를 떠나서 다시노고단을향하야 제이일의 코ー쓰를더해하엿다。(智異山探險隊의 記者發)

磐若峰踏破
猛獸의足跡도發見코
元氣百倍로前進中

【求禮에서三十一日盧鍾璜發電】삼십일오전일곱시삼십분 노고단(老姑壇)을출발하엿다 일행은 도보로거기 한시간반후에 노고단봉오리꼭대기에 올라가니 멀리보이는 섬진강(蟾津江)이 발아래보인다 열한시십분 반야봉(般若峰)에도착 점심을먹엇다 단원일동은 원기왕성리에 산비탈 좁은길을더듬어 단연 전인미답의 새로운 코ー스를 밟어 산으로산으로올라가다 꼼파산도야지의 발자최를 발견하기 네차례모험에모험을 거듭하여 반야봉에 이르는 새로운 코ー스를 완전히개척하엿다 오후아홉시반 일행은산상에서 저녁을 마치고산에서 자고이튼날인 삼십일일 오전다섯시에 깨엿는데 깨여보니 비가오기시작하엿다 그러나 단원일동은비를 무릅쓰고남은코ー스를 정복코저 모도가의기충천이다

曆

▲八月一日(月曜)陰七月六日 干支乙丑 ▲日出午前五時三十六分 ▲日南中午後零時四〇分 ▲日入午後七時四十三分 ▲月南中午後四時六分 ▲月出午前十一時一四分 ▲月入午後十時三十二分 ▲滿潮(仁川)午前八時四十五分과午後九時

激增하는死刑囚
刑臺로끌려가는貪慾·怨恨
半年間執行만十九名

고등법원에서 정월이래 유월말까지 즉상반기동안 사형언도를받고 이미 교수대의이슬이된 사람은 남자열일곱명 여자두명으로 전부열아홉명인데 이것은 작년상반기의 여덜명을초과하기 실로 열한명 작년것의 갑절을 훨신넘고잇스며 작년일년동안에 사형을바든 이십이명에 접근하엿다는 놀라운수짜를 보이고잇다 지금 사형바든사람의 범죄내용을 분류하면 열아홉명중에서 강도살인이 열한명 그밧게 그냥살인이라는 죄명이부튼것은 여덜명이다 다시 이나종것 여덜명의 내용을보면 치정관계가네명 원한관계가네명으로 각각 반수를차지하고잇다 그리고 기이한것은 치정관계와 원한관계로 사형을 밧는사람은 녀매 가른수효를 보이고잇스며 강도살인은 언제던지 전사형수의 유할중을점하고잇다 또한금년상반기에 사형을바든 여자두명은 간부와공모하고 본남편을 죽인 여자라고한다

本報讀者優待公演
中央舞臺、明夜부터二日間

작수(鄭主)연학년(延鶴年)씨가 운영하게된 중앙무대(中央舞臺)에서는 이 세상을떠난이후 여러가지로수난의길을 거러조선연극게에 새로 번에 건준하기로되어 오던 국 시한 레퍼ー토리를내걸고 내일 즉팔월이일부터 사흘동안 오후 일곱시반부터 부내태평통(太平通)부민관(府民館)대강당에서 공연을가지기로되엿다한다。상연될 레퍼ー토리는『인생』원작의『업게남드의 해적(海賊)』(三幕四場)과 이광래(李光來)작『지는해』(一幕)의 두조목인데 특히 이번공연에잇서서는 본보애독자에 한하야 할인우대하기로되여 본보독자우대권을 가지고오는분에게는 일반오십전을 삼십전으로 우대하리라한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千島南方海上으로부터 北日本에잇서서 뻐쳐잇고 蒙古方面의低氣壓과東支那海에는 低氣壓이잇서 東進하고잇스며 半島北部에는弱한 低氣壓이잇다 天氣는朝鮮은北東部과 沿岸滿洲島에비가오는以外에는 大體로 개엿다한다 日本內地는 關西에는 비가오며 其他地方은大體로흐려저잇다 滿洲西部는비가오기쉬우며 其他는 天氣가良好하다

豫報 京城地方의 오늘밤은 흐리기쉽고 明日은 개엿다 흐리겟다

昨日最高	三三度七
同最低	二二度六
今朝最低	二三度
今日正午	二九度

色鉛筆

서울의차집(茶房)은 노릇한 발달을 하고잇서 본정거리 명치정、장곡천정、종로방면에 늘어가는것은 찻집 ▲도회인이 분주하게 거리로 나돌다가 잠간 피로를 쉬이기위하야 훌륭한재의 코ー히 한잔에 아름다운 음악을 약간듯는것은 이도회의 이복작이잡복속에서는 필요하나 ▲이것이 카페다음가는곳가티되여 못된녀가 출입하는동안에 차집도미가 따로생기고 차집천고가 또한 아못해지지안흘수밧게 ▲술안파는곳이라고 학생들이 또 무상출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소위 이판세시가 우승놋고 잇서 접다니를 끌고 잇고 또 그우에 기생에 녀희생까지출입 ▲술안먹고 어린청년들이 생주정을 벽이는곳이차집이 아닐까

江中失踪

삼십일 오후세시경 뚝도면 서뚝도리(纛島面西纛島里)자택사십번지잡화상 윤태성(尹泰成)(二三)이가 한강(漢江)에 잠간 목욕나가다온다고하고 나간채 날이저므도록 도라오지 안홈으로집안사람들은 걱정하야 해질무렵해서 한강가를 뒤저보앗더니버서논 의복만 보이고 사람은보이지안허 필경 목욕하다가 물에빠저 죽엇슴이 분명하여 곳 어뚱을 뚝도분서에 보고하는한편 밤새 시체 찻기에 힘써보앗스나 아직까지 시체가발견되지 안는다한다

義務敎育八年制
前期를六年、後期를二年으로
特別委員會에서決定

【東京電話同盟】초등교육의 내용쇄신에 관한 국민실수학교안(國民實修學校案)에 대하야 심의를 거듭하고잇든 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敎育審議會特別委員會)에서는 삼십일오전십시이십분부터 문상관저에서 제삼십회 정리위원회를 개최하엿다 이미 초등교육개혁안의 정리도 대체로 끗낫스므로 의무교육팔년제의 원칙아래 전기(前期)육년을 초등국민학교 후기(後期)이년을 고등국민학교라고 하는명칭과 고등국민학교의 강화 내용을 어떠게결정하고 오후네시 반에 폐회하엿다

크號는遂絶望
卅日午後까지無消息

【마닐라三十日發同盟】이십구일 가무아도(島)와마닐라사이에서 행방불명된 범미항공회사(汎米航空會社)의 태평양 횡단여객기하와이안·크립퍼號는 이십구일 오후영시삼분 최후의 무전연락이 잇슨채 그후소식이끈허지고 마럿다

그후로써 이십시시간을 지난 삼십일오후한시에도 전혀소식을 알길이업스므로 마침내승객여섯명과 승조원 아홉명합계 열다섯명은 절망이라고할수밧게업시되엿다

京城驛頭에 나린東京留學生蹴球團

留學生蹴球軍
明日第一戰擧行

朝鮮體育會主催와 本社後援의 東京留學生蹴球俱樂部 歡迎戰은 明一日부터開催하엿는데 留學生軍一行十五名은 同部長 朴性天君引率下에 今三十一日午前七時五分 京城驛着列車로 元氣旺盛하가운데 入京하야 太平通 朴三扈館에 投宿하엿다 一行의 戰績은 다음과가트며 明一日午後五時半부터는 京城運動場에서 京城OB軍과 第一戰을決하기로 되어 蹴部의人氣는 期待되고잇다

◇戰績

留學生	2……2	濟	津
鎭	城4……0	留學生	
留學生	1……0	淸大津	
留學生	2……2	新	浦
洪	原1……0	留學生	
咸	興2……0	留學生	
留學生	4……3	永	興
留學生	3……2	元	山

◇留學生軍陣容
部長 朴性天 監督 尹顯璨 書記 朴仁哲 主將 南英澤 幹事 李在善 金永佰 崔東淳 選手 安俊化 張鉉鎭 太熙奎 洪

[illegible] 李春根 金錫俊 [illegible] 金正光 [illegible] 金洪九 金朱鎭 元容夏

朴性天君 談

[illegible]에서 [illegible] 우리 蹴球界를 通하야 [illegible] 우리에 [illegible] 아 勝敗보다도 우리에 親睦을 [illegible]하는데 意義가 잇서다고 생각합니다 淸津을 비롯하야 八道方面에서 여러번 게임을 하엿기때문에 多少疲困한 편이나 最後의目的地인 京城에서의 二回戰에는 우리의잇는힘을다하야 못까지 奮鬪하겟습니다云云

蹴協新會長에
高元勳氏就任

朝鮮蹴球協會에서는 前會長呂運亨氏가 辭退한後 그後任으로 體育界의 先輩高元勳氏를 推戴코저 交涉中이더바 三十一日에 快히 承諾하야 會長으로 就任케되엿다 그리고 副會長은 世專尹致旿氏를 推戴하기로되엿다

自轉車聯盟
發會式擧行

自轉車競技界의發展을 圖謀하기위하야 朝鮮自轉車競技聯盟을 組織하기로되어 그發會式을 來三日午後五時 千代田그릴에서擧行하리라는데 發起人은다음의諸氏이다

[illegible] 有賀潤 金[illegible]九 [illegible] 金正[illegible]

全京城은函館과對戰
都市對抗野球對陣

大每主催의 第十二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는 明一日부터東京後樂園球場에서 連七日間繼續擧行될터인데 昨三十一日에 各都市의 對陣을다음과가티 抽籤決定한바 全京城軍은 第二日(二日)午前十時半부터 北海道代表國館軍과對戰케되엿다

▲第一日(八月一日)午後一時 八幡對台灣(一回戰) 吳對神戶(一回戰)
▲第二日(八月二日) 全京城對函館(午前十時半) 大津對敦山(午後一時) 川崎對新潟(午後三時半)
▲第三日(八月三日) 大連對大阪(午前十時半) 釜石對大宮(午後一時) 名古屋對東京(午後三時)

大演武會經過

【京都電話同盟】大日本武德會主催의 第三十九回大演武會第六日은 三十日午前八時부터 京都武德殿에서 擧行한바 鹿島田榮(四年連勝)、東京豊島師範 大阪府警青年團、東京鐵道局(各三年連勝)이 各各優勝하엿는데 京城師範은 決勝戰에豊島師範에게 六對零으로敗하엿다

떼杯戰績

【○○同盟】떼杯아메카조準決勝…日本對加奈陀戰第三日(最終日)은 日本이 三對零으로 勝利를確保한 뒤를이어 三十日 當地『마운톤·코ー알코ー트』에서 單式二試合을 擧行한바 日本軍은 加奈陀軍을 五對零으로 물리첫다

日本5 (複式1:0 單式4:0) 0加奈陀
山岸 (6 6 6 / 6 1 4) 카메론
中野 (6 6 6 / 0 3 4) 무레ー

運動界人事

▲朴性天君(東京留學生蹴球俱樂部長)入京人事次來社 ▲尹顯璨君(同監督)同上 ▲南英澤君(同主將)同上

腦病·神經痛과
高血壓 中風
今津博士의굉장한研究
不治아니다

(左研究中의今津博士)

어떠한高血壓、腦溢血、中風、腦病、神經痛、[illegible]、[illegible] 等의病으로 苦悶하는분에게는 實로 福音이올시다 高血壓、動脈硬化症、腦溢血、中風、頭痛、耳鳴、不眠、肩凝、[illegible]、手足痺、腰痛 等을 [illegible]으로 治하는 [illegible]法은 [illegible] 今津博士는 [illegible]를 [illegible]하야 淨血劑 「イマヅミン」의 服用과 [illegible]으로 [illegible] 今津研究所 [illegible] 同所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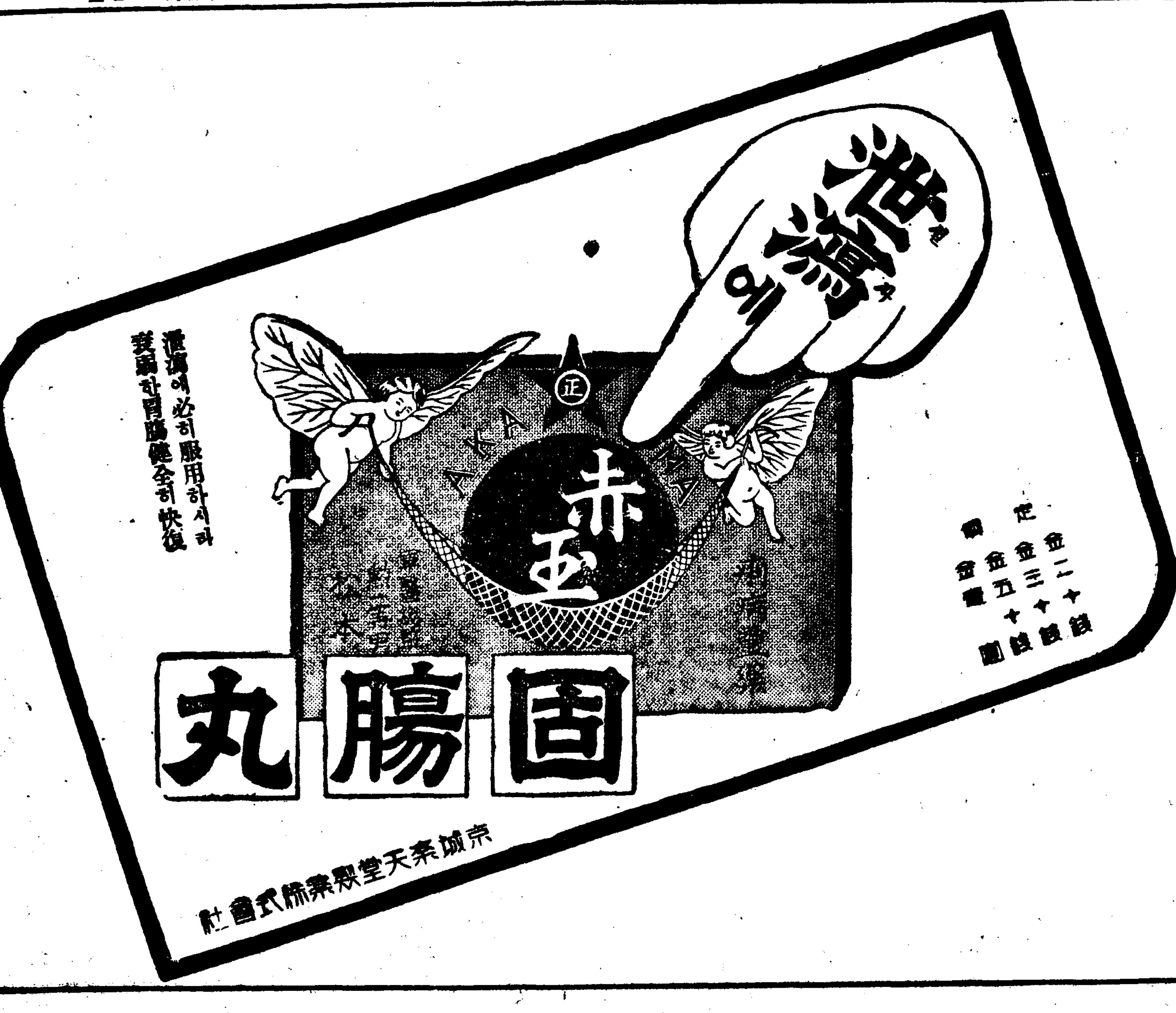
名觀相家
開運의好機는只今!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성룡선생)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 [illegible] 觀相 [illegible]
◇京城太平通二丁目三一六(南大門通 [illegible] 의中間電車通)
◇地方에게신분은生年月日과 면못자세히하여주시면 (사진잇스면더욱명확함)
京城相學院

醫學博士 三浦良雄
內臟外科 一般外科 肛門外科 レントゲン科
三浦外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八ノ一 (京城劇場前) 電話 本局(2)一八四八番(病院) 本局2 七二七五番(自宅)

빅타ー레코ー드
八月新譜
一三四 流行歌 울리라 洛東江 [illegible]
一三四 流行歌 누구심니가 [illegible]
一三五 流行歌 새희망은푸른다 [illegible]
一三五 流行歌 靑春戰歌 [illegible]
一三六 流行歌 가지말나우 요 [illegible]
一三六 流行歌 나는실혀요 [illegible]
一三七 流行歌 熱情無限 [illegible]
一三七 流行歌 잘흥니는歌手 [illegible]
一三一 西道雜歌 華容道 [illegible]
一三二 水宮歌 卑卑天邊 [illegible]
一三三 雜歌 一節痛哭 [illegible]
一三一 加耶琴 念佛 [illegible]



各地虎列刺猛威!

慶北東海岸一帶에 虎列刺防疫陣强化

迎日、盈德、慶州等地에豫防注射

道內衛生課員總動員下

【慶北支社發】북강 현(縣)에 호열자(虎列刺)가 발생되어 장차 조선내에 드러올 우려가 보이므로 경북도에서는 포항(浦項) 영일(迎日)등지 각해안선일대에 그방역진을 베기위하야 도위생과원이 포항에 출동하야 대책을 강구중이라는바 지난 삼십일에 영일(迎日) 영덕(盈德) 경주(慶州) 등 삼군과 울릉도(鬱陵島)에서는 전 군민에 호열자 예방주사를 실시키로 하엿다고한다

溫陽四個浦口 豫防注射實施

【牙山】 북지방면과 상해지방의 호열자(虎列刺)가 창궐하고잇는 것은 연일 지상보도로 일반이 주지하는바이나 충남에서 상해까지 제일가까운 포구를 가진 온양경찰서(溫陽警察署)에서는 미연에 방지코저 칠월삼십일부터 일주일간 아산군 선장(仙掌)면 백석포(白石浦) 인주면 공세리(貢稅里) 등 사개소포구에 출장하야 조사한결과 유아(幼兒)등 선원인부와 기타 전염지방 수백명에게 예방주사를 실시하기로되엿다고한다

門司虎列刺騷動에

慶南道도大緊張

豫防注射檢屍等斷行

【慶南支社發】경남도위생과(衛生課)에서는 상해(上海)의 호열자(虎列刺)창궐을 방어하고저 수일전부터 부산항을 비롯하야 도내각연안에 산재한 해상교통관계자 수산업관계자 접객자(接客者)등 삼만여명에게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잇다한다 기보한바이어니와 그후문사(門司)에서 부산항과 교통상 가장관계가잇는 문사(門司)에서 호열자소동이 일어낫스므로이에 제이차 상사천오백구 명을 검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일반주민에게 호열자예방주사를 실시하고저 계획중이라하며 도지사는 경남도경제 실습교로써 호열자를 예방하고저 전염병예방실습조의 규정에의하야 부산부내에 잇서서 건강진단을 사체검안을 하기로 발포하고 방역에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한다

學校專門賊

北靑에또出現

【咸南支社發】금년봄 함남고등여학교(高等女學校)의 기숙사에 침입한것을 비롯하야 전후 십수회나 함남북양도의 학교를 전문으로 절도행각하야 도내각경찰서에서 엄중수사를하고 잇던 괴전과적은 도다시 경찰의 수사를 비웃는듯이 북청군(北靑)에나타낫다

天津에도去益猖獗

患者三十名突破

日支兩當局銳意團束

【天津】 천진에도 호열자가 날로 창궐하야 시민들은 공포에 싸여잇다 지난이십오일에 일계(日界)해행사(偕行社)에서 금후의방역책(防疫策)을 일지양당국(日支兩當局)에서 방역위원회(防疫委員會)를 개최하고 위원으로 日本側=岩水大佐、加藤軍醫部長、臼井民團長、田中領事、田村醫師會會長、田島警察署長外十數名 支那側=潘市長、傳衛生局長、周警察局長外七名 출석으로 금후일층적극적으로 방역을 강화케하려고 실시사항(實施事項)을 신속한방법으로 구체방역방법을 결정하엿다 별항과가티 지난이십오일 위원회지나측에서 발표한보고에의하면 다음과가티

實數患者	一八人
內死亡者	一〇人
疑似者	一四人
內陸作者	六人

이상과 여히 지금이병자(罹病者)가 삼십일명에 달하는바 일반지민(民)들은 예방주사(豫防注射)를 맛기를 바라다고하다 그리고 예방주사증명서가 업는사람에게는 출행을 엄금하니만치 일제히 단행하야 일반에게 누가 엄도출하기를바란다고한다

九連城鍰河江에

水泳開場式盛況

安東縣九連城鍰河江의 수영

【安東縣】 압록강을 아래둔 안동현은 그강이 국제강인만치 모든 수사정으로인하야 유히전행

◇安東縣九連城鍰河江水泳場◇

貨物車轉覆

幼兒一名卽死

【全北支社發】 청월이십구일 와주군 비봉면 비풍탄(飛風炭)의 소유회물자동차가 전주를 향하야 잇스며 물이 맑고 부근일대는 최시새밧이되여 유원지로서는 최적지라 하다 교통기관은 당지 안동산업자동차 빠쓰로 약삼십분걸리며 요금은 왕복대인 오십전이라한다 이로하미아마 물에모랄으린 시민은 물에해방되여 나도나도하며 달녀드러 매일가티성황을 이룰것을 예측하는바이다

夏夜納凉船遊타가

一家族六名死傷

咸南安邊郡下의慘事

【新高山】 여름밤의 더위를 못이겨 서늘한 강바람을 쏘일라고 한 가족을데리고 배노리하다가 참화를당한사실—함남안변군의 면사리(咸南安邊郡安邊面沙里)부호 안영(安永準)은 칠월이십팔일밤에 가족과친족오명을 데리고 근처 자기소유인 수리게 저수지(水利契貯水池)에서 자가용목선을타고 선선한공기에 심신의피로를 소풀하며놀다가 배가 별안간 전복되여 적기안씨의 처 오씨(吳氏)와 식모 어씨(魚氏)는 무참히 수중고혼이되고 그외 네식구는 겨우 생명만은 무사하엿다한다

色衣獎勵强化策

染色講習會開催

【天安】 충남천안군(天安郡)에서는 색의착용의 개시일인 시월일일을기하야 일제히 착용케할 예정으로 여러가지준비를 하는 동시에 적기와가티 염색강습회를 개최한다

1、日時 八月二日午前十時
2、會場 天安邑會議室
3、講師 洪道技手 劉道囑託
4、聽講員 約五十人
5、講習事項 郡邑面色衣獎勵係職員、教化係、人公立學校職員數員、婦人會幹部
6、色布의洗濯法

神人共怒할無賴漢

婦女를暴行殺人

一回公判에死刑求刑

【大田】 지난이십구일오전구시부터 대전법원법정(大田法院法廷)에서는 석천(石川)재판부장 배석 산전(山田) 검사입회하에 강간살인절도(强盜殺人)의 피고 박립택(朴立澤)에 대한 공판이 열렷는데 피고는 금년정월 초순의일 순이의 남편이 다른곳에간 사이에 순이를 기회로 일찍이 오전부터 가서 시경에 강순이가자는방에 들어가서 화간(和姦)을 강청하엿스나 불응함으로 강간으로목적을 달하고 순이가 사람살니라고 소리침으로 그만그를죽이고 다시 부근에서 직사시키고 그옷방에잇는 백미일두오승을 훔처가지고 도주한사건이라한다

豐山水防團演習

【豐山】 경북안동군풍산(豐山)수방단에서는 지난이십구일오전칠시부터 당지심상소학교광장에서 수방연습을 대대적으로 하엿는데 당일참가자는 부근주민이천여명에 달하엿스며 동일오후이시경에 무사히끗을 마추엇다

淸州農校生即死

落雷에感電되어

【淸州】 청주군사주면 봉명리(四州面鳳鳴里)에 거주하는 남씨 수(南氏洙)씨의 장남명하(命夏)는 청주농업 학교삼년생으로 지난이십구일 오후일시경 약초채취하야 나갓다가 도라오는 도중천기 급변하야 고개에서 벼락에감전되어 직사하엿다는데 당일풀것도록 도라오지안흠으로 그어머니 찾는이가 고한다

지난이십구일오후에 남하의 대구청주간 도로 측구에 치어 중상 사계를 겪지한의사의 왕진을으로 … 그외가티 부근에 잇는 공무원 들이 …

淸津拳鬪大試合

職業拳鬪聯盟主催

本報淸津支局後援下

【淸津】 직업권투연맹의 주최와 본보청진지국후원의 권투대시합은 팔월이일 오후팔시부터 부내 소화좌(昭和座)에서 개최한다는데 벌써부터 일반의 인기가 비등하여 당야의 푸로그램은 정진선수의 오른 엄이잇스며 아래와가티하다

1、高英一 對 德山英雄 四回戰
1、藝花動(任泰) 對 崔元京(京泰)
大回戰
1、朱福寘(鮮滿) 對 松本銀太郎
(東光) 八回戰

叺、고무로—루統制로

業者需用量調查

申請期限은八月一日

【慶北支社發】 곡용가마니(叺)와 고무로—루의 생산부족 은 전선적으로 일어난 문제로 서 업자가 방고잇는 부자유와압 박을배제하야 그생산배급과 가격의 적정을 기하야 총독부와 조선곡물협회에서는 방금 그대책을 강구하고잇는중인데 이번에 대구곡물상조합(大邱穀物商組合)에서는 그준비로 곡용가마니와 고무로—루의 수용예상수량신청을 조사하고 은는팔월일일까지 동조합에 신청하도록 각업자에 통지를 발하엿다고한다

1、穀物叺 自今年八月一日至明年七月末一個年間
1、一月別需要豫想數量
1、고무로—루 自今年八月一日至今年十二月末五個月分數量
自明年一月至明年四月 四個月分數量

商工業者救濟策

釜山商議所協議

八月二日同會議所서

【慶南支社發】 기보=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오는이일오후세시부터 동회의소에서 의원회를개최하고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기업계에 서대한 상당한 영향을 주고잇는 중소상공업자(中小商工業者)구제에 대하야 협의를하리라고한다

崇仁學院改築

【釜山】 순천군쌍암면 쌍암리 숭인학원(崇仁學院)은 지난봄에 화재로 전소된사실은 이미보도된바어니와 지금자리이 민의열성으로 구재하는데 어민중이만한 장진(張鎭)씨는 학생들의 교육을 계속하려고 강당을 신축하엿다 그로 파의자를 기부하여 더하얏스 부락민의 칭찬이 자자하다한다

(放送) 프로그람

三十一日(日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 香一、짱아짱아一、토끼의탈 百合어린이會 指導 金虎俊
◇同六時五五分 童話 李明世
◇同七時二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趙鼎玉 鼓手 丁元叟
◇同八時三〇分 라디오小說(京城)『短篇集』 李白雨
◇同八時五〇分 라디오小說(平壤) 韓稷波
◇同八時二五分 (東) 落語
◇同八時五〇分 (東) 라디오風景
◇同九時 音律 一、平調會相 二、吹打 三、興民樂 玄琴 金雨墻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番組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風景短時 西村眞太郎

第一放送
◇同六時二五分 (東) 童話
◇同六時三〇分 (東) 童謠
◇同七時二〇分 아나운사—國際
◇同七時四〇分 (東) 歌謠曲

八日一日 (月曜)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二〇分 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호박나물』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家庭時間 洗濯巧法(一) 李 鎭一
◇正午 (東) 時報 (東) 和洋合奏
◇午後零時三〇分 뉴—스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月例講話『오늘 날世界는엇더케되엿는가』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李鼎谷
◇同七時 愛國講話
◇同七時二〇分 뉴—스 氣象通報
◇同八時 大衆講座『國家에 對하야』
◇同八時三〇分 長歌 개고리타령 洪開明
◇同八時五〇分 一、雜歌 二、京畿雜歌 三、가진소리 四、平壤念佛 五、가진念佛 鄭仁根 白牧丹
◇同九時一五分 라디오劇 方仁根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秋短歌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實用英會話
◇正午 (東) 和洋合奏
◇午後五時四五分 (仙) 獨奏
◇同六時 (城)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城)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歌曲
◇同七時四〇分 (東) 講演
◇同八時 (東) 吹奏樂
◇同八時二五分 (大) 舞踊 大阪放送合唱團
◇同八時五五分 (東) 라디오드라마 青柳信吉作

廣梁灣

探勝團員募集

▲日程 八月六日午前七時四十分西廣梁灣驛出發 同八日午後七時四十五分同 驛歸着
▲參加金 十一圓(一切費用記念寫眞代까지)
▲定員 二十人
◇申込期日 八月三日까지
◇申込所 廣梁灣朝鮮日報社支局
◇主催 本報廣梁灣支局
妙香山 蝀龍窟

淸津

拳鬪大試合

▲時日 八月二日午後八時
▲場所 昭和座
◇主催 職業拳鬪聯盟會
◇後援 淸津體育會 朝鮮日報社淸津支局

國成社
晝夜二回 晝一時 夜七時半

樂劇團
8月1日부터
桃源境大公演
京味百%의大娘子群藝來!
노래!춤!歌劇·音樂·의混合칵텔
空前絶後의豪華無極絢爛版

今週上演藝題
洪開明構成 바라에듸
1 金色의꿈 8景
2 月夜曲 8景
李瑞求力作 喜劇歌 青春호텔 1景
全員總動員
青春호텔에서 어러난明朗한로—맨스 現代와 古代의中間에 處한 青春男女의 苦悶을 시원이 解決하는 輕快하고 유—모어한 作品
新鮮潑剌한 아가씨들의肉體美… 百花난慢한女林 歌姬와 舞姬들의生氣잇는 躍動氾濫한 人氣에 群舞鮮烈한 二十餘名아가씨들의 淸凉의 聖歌舞·마음껏 마음껏 여러분의心臟을 흥겹게하여줍니다

次週豫告
洪開明作 喜歌劇 사랑은 속아도사랑 五景
五色燦爛한 바라에듸— 16景
李瑞求作 喜歌劇 結婚太平記 五景
乞期待!
冷房完備
團成社 電光三四九三番

肺病必治
꼭 낫는다!
無料 (肺病養生書)(藥劑의 結核에 關한 文獻과 나의 유治 法을 無料로 드리고 도 良藥을 無代進呈합니다)
조선동포와 조선에서 사는 內地人士의게
望勿者重엇 爲라症더 失도患한
身熱이 나리지안는 분 기침이 곳지지안는 분 밤에 식은 땀나는 분 喀血되는 분 억개가 무거운 분
不眠症잇는 분 每日疲倦하는 분 胃腸이 弱한 분 頭痛나는 분 倦怠症나는 분 胸腹痛잇는 분 關節炎이 잇는 분
第三期患者도本療法을 시험하시요 내가 나흔것이 무엇보다도 證據입니다 數年前에 무서운肺病에 걸니는 世上에 흔한 藥과 療法에 莫大한 金錢을 無益하게 쓰고 最後에 全科診察을 바덧스나 죽을 날만 기다리든 나는 安心하고 완全生命을 얻어가며 모든全快法을 研究하엿습니다 研究가 성공하야 一時는 明日의 生命이 危殆하든 나는 되어 二個月後에는 以前보다도 健康한 身體가 될수잇습니다 나에게는 가장 有效한 肺病의 特效藥과 當時의 實驗談 藥의 選擇法 갈든가치 病의 選擇法 一切의 肺病治療秘訣을 一히 瞭然하게 無料로 누구에게든지 가르쳐 드립니다 또 特殊한 患者에게는 時效良藥을 無代로 드립니다 肺病、肋膜、肺炎、加答兒로 苦生하시는 분은 이 좋은 보시게된 것이 무엇보다 多幸입니다 百年의 後悔가 되기前에 이 新聞名(朝鮮日報)을 記入하야 肺病全快法 無料交付를 請하시요 하로의 遲晴가 一時라도 速히 奉仕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救人하기 爲하야 하고 잇는것이 오니 아모조록 安心하시고 問議하야 주시시요
本人住所 東京市小石川區東青柳町二三
松島敎正

松の實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訥言專門矯正院
(京城府惠化町一〇八ノ二)
말더듬이

八月新譜
新民謠(一九四八○) 돈 打鈴 鮮于一扇
流行歌 南風에 꼿이지면 郭明月
流行歌(一九四八二) 거리의夜曲 尹鍵榮
紅燈夜曲 全玉
新民謠(一九四八二) 아리랑눈물고개 王壽福
流行歌 嘆息 全玉
太平레코—드

醫學博士 西野入直澄氏御推獎
富士胃腸藥
胃腸病으로苦痛하는분은最後的으로 服用하라!
漢藥과洋藥과科學的으로結合케한高貴胃腸藥으로서如何한胃腸病이든지征服할수잇는靈藥입니다 一次最後的으로試服하시라! 試藥進呈 郵券二錢切手
定價 金五十錢 一圓 二圓 參圓五十錢
發賣元 富士屋藥局 京城南大門通一丁目 電本②四七七六番

耳鼻咽喉科 姜耳鼻
永日姜 士博學醫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三一七〇番 備完室入院

明日 8月1日 封切
若草劇
長谷川一夫主演 五月信子
瞼の母
錦夏に贈る内外二大傑作名篇! かたときも忘れ得ざる母が面影流れ流れて一宿一飯のしがない渡世の番場の忠太郎、雨露凌ぐ假り寢ぐらじーっと上と下との瞼を合はせ脳裡に浮ぶおふくろさんえ
岸井明・小林重四郎・葛木香一・堤眞佐子・藤間林太郎・永井柳太郎・香住佐代子 原作 長谷川伸 新興映畫
或る父の横顔
ハーディ・クルーガー・メグラス・ナナ・アイヴィ (特別出演)
ユニバーサル・ユーヨーク作品
大毎・東日ニュース
早朝割引 入場料五十錢均一

明治座
一日封切
近日冷房兒備
松竹 三本立 華週間
尊王祇園會
監督 衣笠貞之助 主演 坂東好太郎 伏見信子
彼女は何を覚えたか
監督 野村浩將 主演 佐野周二 高杉早苗
佐野と高杉が珍らしくも水着となって泳ぎ廻る炎夏も吹飛ばす納涼篇!
皆んな見えなくなる峠
松竹大船作品 JOAK懸賞當選ドラマの映畫化 主演 水島亮太郎 大寺(?) 村文子
讀賣・朝日・パテー 世界發聲 ニュース映畫 映畫月報第一輯 蔣介石は何處へ行く 戰時日本のお台所

山東胡白菜是乃田不見書 通信大賣出
純支那種 是乃田 包頭連 種貫胡白菜種
勿驚!
包頭連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七十錢 五合三圓三十錢 一升六圓五十錢
芝罘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 一升五圓五十錢
直隸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 一升五圓五十錢
山東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 一升五圓五十錢
中國青長大根 一封二十錢 一合七十錢 五合三圓三十錢 一升六圓五十錢
注文方法 迅速酬應
安東縣江甸街 山東農園

桃花劇場
七月卅一日부터八月二日까지
大時代劇 密林의覇者 (日本다—삼) 主演 長尺二寸大鍋山熊之介
松竹時代作品 お且那變化 主演 小笠原章二郎
海は桃色

本日
マクニン デー
虫退治
먹기쉽고・잘듯고・값싸업다
1 効力確定 副作用 中毒作用업다
2 死虫으로排出하야不快感이업다
3 一回의分量으로完全이驅除된다
4 下劑의必要가업다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論想) 文藝와生活

延禧大學 金亨中

藝術을爲한 藝術이가 生活을 爲한藝術이가 이것은藝術의存在를意識한以後의큰問題이다 어제 세상이도크게 웨치는主義들은 目前하면서 藝術을罪列하려하며 文藝는 全體무엇때문에 存在하는것이가 또文藝를 鑑賞하는人間은 무엇때문에 이러한勞役의支拂을不憚하는것이가。

이"爲한"이라는文字는 多少 誤解를招來하기쉽다。"爲한"이라고부르면 藝術의目的은所定存有하고은藝術은그目的을達成하려는것의手段으로 誤解하기쉽다。生活을爲한 藝術이라고 불러도 吾等은 그러한 觀察에서 全然 解除되엿다고말할수업다。生活의 生活다운 所以는 그意義이다。그러나 藝術은 그러한 意義의 한個가되지안는가。그러므로 生活을爲한 藝術이라고하는 觀察은 藝術을爲한 藝術이라고 부르는것과 根本的으는 相違되는 觀察이라고는 말할수업다。藝術을 爲한 藝術이라는것은、藝術의 絶對獨立性을 高調한 言語이다。藝術은 오직藝術이라고부러야조타。自然人芭蕉는 痛快히 『字의 風雅는 夏爐冬扇과 갓다 衆에 反逆하야 用하는 處없다』고 말하야、藝術의 實用主義者를 罵倒하였다。또『俳諧는무엇때문에愛好하는가 風雅를爲하야愛好한다。風雅는무엇때문에愛好하는가 諧謔을爲하야愛好한다。』고말하야『反逆되므로서의眞理』를大膽히告白하였다。

그러나그러한觀察은 藝術을生活에서 全然遊離시키는것은아니다。生活은無限히깃븐 源泉이며 藝術은 그의生命의 動하는尖端이다。藝術하므로써의 作品이며 背景을 지임으로써의 生活이다。意義와 生活은 個別的物件이 아닌것이다。統一의尖端의意義이며 統一의原動力이生活이다。創作하나 感味하나 文藝는苦鬪이다。그中에 主觀는 技巧의 包含은 勿論이다 文藝는 生活의 苦戰이다 安逸을 貪하는藝道는 아닌것이다。意義는 苦悶을表現한다 人生의問題와 理想을表現한다 여기에 文藝의作品에본創作家의 生活의 오는問은問題 오理想이 表現되는것이다

『진실』은 陶器의 把手를 考察하야 거기에 美와 實用과의 不思議한結合을 본다고 論하엿다。藝術美는 生活에서 遊離시켜 單只 美麗하다고 부르고십지안다 그보다더 崇高한 綜合된 立場이다。美라는 한個의生活意義에서도 全體의 人生이表現되지아니하면 아니된다。藝術을爲한 藝術과人生을爲한 藝術이라는것은 그深淵에서는 全然 一致된美이며 또 그一致된곳에서 二個의 要求의意味는 現出될것이다。

★歸鄕小感★ 素朴한農村

梨花女專 金福業

農村의生活

農村의人心

農村에對한 그모든常識을 잘 吸收치는못하나마 그래도 얼만콤알어진듯십다 나의頭腦가 좀컥어진듯한마음에 若干의것봉불만불수잇다

人間은 어느程度까지 向上을바라고사는것을 바도 그證據에서 向上을 바람은이지 表面으로나타나지안흔 向上에 그우에滿足을느끼다 내아직도 떨내나는精神의차네인만큼 向上을바라고 向上을 엇는다면 果然 그向上은 물도다量으로나 얼마나될것이라!

그러나 進步보다도 進步를바람이人間에常情이라면 나는그 조고마한進步나마 잘가지하고 슬킨다。

農村에서어려나는 가지가지 農人들에 誠實한生活에싸여서 잘마한向上도 엇을수잇고 잘마한進步도차줄수잇섯다。이것이아마도 人間修養인가한다。나는 어農村에서보는人間苦에서 樂을바랄수도잇는것이다。나로서는 아직도세상을모른고 배움에동산에서 學業을 닥는만큼 언제이나 나는남보다先導되여야할것을 엿지안엇다。지금에이生活도 남보다先導된 意識으로肯定하고 어떤속에서려나오는 全部나의精神的試驗에何節도 全部나의多幸한意識의 糧食이며 進步를바라는 根本이라고肯定한다。

果然질박한農村의 生活에서 人間의眞相을차줄것이나? 그것은疑問이다。나의좁고오좁한 머리속은그것을알하지안는다。

×

비가온다。

旱魃이라恐怖속에쌓여잇는農人들에 一大福光이다 生物에 蘇生이며 甘露水이다。

논에물을부치면 窮乏한狀態를몰면서도려다보라는悲劇속에서 어얼마나 天惠이라!

그서울長安에서는 不安에쌓엔 이農村의일을 잘모르리라!勿論비가오지안어서 걱정은걱정이나 그래도農民은눈으로 흐뭇만 드러다보는 農民들해 눈그 얼마나 希望가잇는가?나는처음보는이情景에 녹이라도특비가오기를 기다렷다 서울잇슬때에는 비가오면오나 보다안오면 안오나보다 이러틋무심히 지내왓스나 지금내가잡서라도 이農村에물을 依持하고보니 비가오고 안오는 그必要性을너무도切實히 늣겻다나의뚜렷한눈瞳子로논바닥을 드려다볼때비작비작라는 벼포기에 나의마음조차 바작바작라는것이다 苦待하든비논은다올라리바그로 벼라다보이 논바며 호박오어들도 벼방울들이을고 고개를들며 生氣잇게하늘을 처다본다 모지가들여거리든 땅우에도물이잇다 방분울업어 제치면 푸근한흙냄새가 나의코에 은근히떨어주는것갓다

가더러블러!비는작고만온다나 논두심이 떠다지를열고 축축나리는 빗방울을 바라본다無物主에 惡漸을생각하면서

그러나 벼오는이날 아때질금울엄마는 울고만잇다 남편도죽고 小作農조차 빼앗긴悲運에못이겨 한숨일 저비방울파하게울고잇다 남들은비가온다고 조하서 날뛰나 오직 금돌엄마는 비가와도아모現所得이업승을寒心할이런가? 人間에 삶이란이러케도 고달픈가?

生이란果然 울음이나? 한숨이나? 나의머리는 透明에서 다시不透明으로 移動할때 어마음을흔는다 날구진날 검은안개 멀이돗오히한兆이가리다 (끗)

東京─下關 歸省途中雜感

明大政經科 梁敏國

비오는의 大自然을 左右로 보면서 歸省하는 自然情景은 例年보다 떡으나 만흔喜悅를주엇다

東京에서 뿌리흘리고 엇는 불근太陽을 自然의狀態그대로 보니 限엇시 自然의품이 그리웟다

모지한젓까지도 싹싹처버린 푸른草木은 人間의華인 靑春의表象이엿다

自然을理解하고 自然을愛好하는 나에게 어산뜻한表態이 주는感覺을 前夜에한잠도못잔 列車疲困을 忘却식킨다

東京과大阪間處處의水田이큰 湖水化한것이 처지안엇다 그우에서 노를젓고잇는光景은 靜波動의 調和美엿다

언제보아도 스러나지안는日本의自然美!그律動은 時期의 色彩的興味라할께 絶對必要한 旅行者의 慰安의對象이다

複雜하게 옮지기는 驛線은 나의官性에 快感을주는것과如히 여러사람안테에도 感覺의 滿足을줄것이다

그러나 좀더 自然을科學的으로 觀察하며

그러나 自然에는 平和와喜悅이잇는反面 1、類의 苦痛의原因도 潛在하고잇는것을看過할수업는것이다

自然은 1、類을돕는同時에 1、類의敵이다。그러나 그는 亦是 1、類의 最善한敎育者者이며 保護者다

따라서 自然에對한 感性의 缺乏 2、品性에對한 缺乏이라고할수박게 업슬것이다

大阪까지 오는새는 大阪에南의不通線이 開通될줄만 미덧든것이 大阪─明石間을배로 連絡한다는말을 車속에서 들고 多少의 不安과 不便을 豫想하엿다만은 不安과不便에만 이豫想을 固定시키지안코보니 이는變化를聯想시켜 도리혀興味를 느끼게하엿슬뿐 風光이 明媚하기로 일홈난 神戶─明石附近의景趣에對한期待로 마음까지뛰노는 自己心理狀態를 發見할수잇섯다 그러나 흐린日氣가 자못걱정스러웟다 아페다처을變動을 確定히을으고 뛰노는內面的心理는 冒險에對한 憧憬일것이지?

또그는 未知의世界에對한憧憬일것이다 이러케마음이 뛰는것을보니 未知의 神秘性이 人生에주는 希望은 참으로크다는것을 感得할수잇는 同時에 人間은 어느意味에엇서 一種의冒險업것이다

未知의魅力과 變化를 期待하면서 大阪港에서 乘船하여스나 여러가지 現實的現象을 目睹한 나의첫印象과 興味不快해젓다。

앞을다투면서 船客어라 定員을超過한船客가 하도만어서 조고만한배는 언제顚覆할는지몰을 危險狀態에이섯다

그러다 어떤저편에는 四五手哭되는 배를이 巨艦을 뵈주고이섯것만은!아!그러나 여기에서 어두가지 光景이 준 나의不快와 不滿은나의모든期待을 무너워버렷다

風光에對한 憧憬의 目標이엿든 神戶附近도 다스러나슬뿐 나폐업는 波勞感을 느쳣다 明石에到着하여술때에는疲困한몸으로 다시車에오르기도 스럿다만은 時代의 性格인스피ー드斷片性을 無視하기는더무도 어려웟다

明石을떠나 下關에向한途中에맛난 出征兵에게서 바는學校에入學한 첫해 政治學敎授『戰爭과平和는 두個의 巴酷는아니고 오히려 戰爭을 無限의過程에두어서만 비로소 平和의維持가可能하다』고한말을이 記憶난다

그러나 現代가 理想的時代가 아닌만큼 이點에對하여서도 赤是全面的으로 肯定하기는어려웁다

混雜한車속에서 몸을비비며서 下關까지와서 처음 한숨을 노을수가잇섯다

東京에서 下關까지오면 下關은 朝鮮의情味가나고 朝鮮에서 건너올때에는 日本의情味가 나는것은 地理的關係일것이다

連絡船을 아페노코보니 그리운朝鮮에 한時바삐 건너가고시펏다

엽차기에 들어잇든『鄕隣의斷想』에는 連絡을아페노코朝鮮을 그리워하는 나의마음을 다음파가티 써주엇다

即『何處을勿論하고 他國에서 사는것은 말할수업는 幸福어다─그는우리의 두가지 憧憬 即漂泊에對한憧憬과 故鄕에對한憧憬의綜合─ 任放과存在의 綜合이무로』

(詩) 그리워질까 두려워하는곳

城大醫科 李應鼎

孤獨에울면서도孤獨을사랑하는
외로운藝術家들을흘리며安息을주는곳
오날도악지못한엔에이끌려
그곳에只今 나는놓로 두어잇다네
푸른綠柱石가튼잔디의面紗는
몸미테서 輕快한柔軟感을주고
말업시나를愛撫하는시원한微風은
나를꿈꾸는것도갓게하고 잠들것도갓게한다
내아페가로누은太白山脈의
雄壯하고神秘한風致
내가조하散策하는森林속의길 山미테를
그리고또
내가노래하며 헤매는人跡드믄山지숩
이것이모두내눈아페누어잇다
따스한日光으로 牛乳빛의내눈아페꿈속처럼
어쩐지 오늘은모두가天國과가태
풀사이에뵈이는遠景의新鮮하고優美함이여
그우에솟갓가는풀과
프른하늘과의무럿한境界線은
여름의바닷가를生覺내이며
무엇을冥想하고십게한다
그리워질가두려워하는이곳!

여기저기파 노후구뎅어
自慢들의巢窟이엿던이곳
그러나只今은
女人의臥像가린曲線美에 흘린는어던이고
綠色의絨단을편내마음의잠자리며
夢想의搖籃이다
가지려고긴내등의소나무와숲뒤의숲맛도
恐怖의都市에서 解放되엿음을歡呼하는곳
서로合唱하며人事하며 餘生의幸福을속긔다
해비출마으며 손에들고풀라고페친歌인
고ー리키作『どん底』의陰慘한글자는
내에덴東山의꿈을깨울라고하는
사탄의使者가티生覺되니
벌벗을목에나는이를내던것다
두팔은머리미테 노이여버개가되고
馳騁을곤혼내腦에知覺됨은
아름다운草木의속사임과 日光과
구로ー봐의부드러운感觸과
假眠하는그의香氣의馥郁함뿐
그들의고마운意志를感謝하며
四肥를쭉뻗치고 大氣를滿喫하나는
나의浪漫的冥想이
甘美한꿈으로變함을깨다르지못했다
오ー봄지난것여름의이곳이여
젊은이의樂觀的인感傷을짜아내는이곳이여
여곳이그리워질가두려워하노라
情熱의詩人에게孤獨이繼續되는限
이곳이그리워질가나는두려워하노라
ー끝ー

少年……(콩트)

文化學院 徐起鴻

추기운동회스날이다。놉고푸른 하늘에 꼿불(煙火)이 노란 연기와 함께 세번 모지게 뛰엿다。운동을 잠시 중지하고 다가티 점심을 먹어보자는 뜻이리라。

꼿불이 튀고난 나머지의깜한 꼬지가 시름어시 파란허공을 맷그러저 땅에 떠러지는양을 무연히 바라보는 소년은 생각난듯이 뒤로 몸을 도리켯다。아침에 약속한 아버지를 좌즈려 함이다。그의 원편 염구리에는『오면』이라는 경주에서 일등상을 바든 두채의 잡기장이/ 꼭 끼여잇다。연약한 소년에게『오면』이 자저다 주는 행운이 아니면 (상)의 즐패감도 맛볼수 업는것이엿다。소년은 와작거리는 사람떼를 헤치가며 아버지의 얼굴을 차젓다。『발꿀아』『송아』『꽃』여게저게서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들의말소리와 아버지들의 등중한 목소리가 들릴뿐 소년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엄연한 말소리는들니지안엇다。

소년의 마음은 어두엇스나 『아무리 그래도 약속한 내아버지니 꼭 왓스리라』는편함업는 신명을안고 운동장주위를 한고패 두고패를 도랏다。그러나、아들은 기대리는 아버지의 얼골은 뵈지안엇다 지어온 점심을 먹이려고 아들과 딸의손목을 이끌고 그늘을찾는 어머니들。혹은 아들에게 만두와 과자를 사주는/아버지들。소년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젓고 소년의 두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어엿다。그는 또 운동장을 다시한번 도라보앗다。혹시 어머니나 오지저 안엇나 하는 생각에。허나、소년의집은 고개너머 십리다。그리고 젖에는 어머니의 엄격한 서부모가 잇스니、아무리 내아들이 귀한들 먼 거리와 엄격한『시부모의 눈』 어린 장변을 볼어떨수업는 구식부면(舊式婦德)의 쇠사슬에 얽매인소년의 젊은 어머니엿다。

세번 네번 도라보아도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림자조차 뵈지안엇다。아버지의 약속에 실망한 소년은 울울한 배를 안고 학교스뒤 무덤여패 자서 하늘을향해 힘을잡버젓다 놉고、파란 하늘에는 솔가른 하얀구름이 떠돌고잇다。

『거짓말쟁이 아버지!』소년은 하늘노피 떠엿는 아버지의모양─아침에 어머님보고 점심을 주려고타고하나까 『홍아、너이놈 벤또는 무슨 벤또야。오늘 나두먹자고하니 근심말구 어서 가란』고, 태연스리 말하며, 거울아페서검한수염을 깍든 아버지의 모양을 행해 중얼거리엿다。

소년은 날이저므러서 우울우울한 국사당 고개를 혼자 넘엇다。울적한 고개 마루터 국사당의 돌담이 무너지는 소리에도 소년의어린가슴은 놀내지안엇다 원한다 서글프마음은 독강의조화라는 국사당의 돌때이 굴니는 소리에도 무서워할 마음의 여유를갓지 못하엿는것이다。마음압 강변에 이르렀을때에는 열으도생달이 서편하늘에 보이엿다달빗실고 웅웅히 흘너가는강물엄 빠진 사람모양으로무엇허 내려다보든 소년은 별안간엽에 끼고잇든 잡기장을 와락와락 찢어서 흘너가는 기픈강물에 뿌려엿다。물결따라 무심히 흘너가는 흥런진 오면(잡기장)을 하염업시 바라보든 소년은 으악!하고 참엇든 우름을 터트리고 경어메말리가는물속에조고만몸을내던졌다。

『엄마엄마!』소년은 겨우려가는 얼게당돌을헤쳐보면서어어○ 울엇다。

어데서 들녀오는 여자의곡소리。어두운방 구석에서 저녀방울을울여든 소년의 가슴은떨꿈하엿다。그것은 화실히 부엌에어머니의 울음소리를기때문에。소년의머리속에 불걸의메갈이 떠오른처렷다 부엌쇠는마음의 가난한 절에 태여난 더번머리 아히엿고、작년겨울부터 병들어더 지금까지 누어잇는것이다。그는 놈은 부정스러운 동무들 한때 메맛고는 울고불고 흑차 고독히 지내는 불상한동무엿다。그러든 그가 지금 얼굴잇고 어저때 그 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니지 안는가

『엄마!저게 무슨 소리은』

『가엽서두 부엌쇠가 앗가죽엇단다!』

어머니의 대답에 꼿하겨도전에 소년의 전신은 부르르떨엇고 그의 얼골은 어상하게 벗숙거리엿다。

『홍!죽엇스면 죽엇지 그게 무슨 상관잇서。내가 만약죽으면 부엌쇠가 날 슬퍼할것가튼우。엄마!엄마가죽어봐두 가엽마흘퍼할사람어잇겟우』

이상한 일이엿다。슬가락을 든채 벌꺽이러서서 으름밥며 한거름 두거름 어머님압으로 닥어서는 소년의 두눈에는 무서운 살기가 서리엿다 소년의 어머니는 갓가히 닥어선 아들의 빗죽거리는입으로 손으로 트러막엇다 그리고 시부모의 눈을피하야 아들의 손목을 이끌고 뒤우란으로 빠저나갓다

『오늘 아버지 못와야 웅홍아?』아들을 달내는 어머니의 부드러운목소리엿다。

『히!』서러운 우름이선 그는 얼굴을 빗죽대엿고 코소리를 쳣다。

이러케 소년의 설움은 풀렁히 비블리지고 말엇더다。

隨筆 滯京記

中專 金容泰

이제부터 漢帝도本格的威嚴를 보여준다 서울의여름이란 이러케 더운것이겟를 새삼스레 알어 얼마나 幸福되엿든가를 되어진것도갓고 故鄕農村의 여름지퍼聯想된다 마을압亭子에서 洞里老人들의 豪傑스런 過去와마을의傳說甲午年亂어세、丙子胡亂이세、乙丑年洪水세、늘어놋는말이 무엇인지 땀흘개어게하고 마음까지 서원스레 하야주지안는가 그러지안흐면 냇(川)거니 原頭幕에서 품겨오는 수박냄새、오이냄새를 마터가며 낫잠한소곱하는것이라 어찌都市에불드린 나로써 表現하겟는자。그러나 나는今年夏休를 올르게도 아모런 旅行도못하게 되엿스려니와 내故鄕도못가게 宿命되여버려서、날마다 故鄕의그리운情景과 메누이동생들과 홍댐새나는 農村의 郊外를 건날어보는情다운趣味를 假空的으로 抽想하야보고만잇다 나도 노ー트 整理자 꿋꿋고 數科書배운곳까지 一次만謝破하야버렷다면 다른旅行은 몰라도 故鄕만은한번갓슬것이다。그러나 今年一學期에 내아페肉迫한不幸으로말미아마 滯京안흘수업게되엿섯다。그리하야 圖書館에서圖書籍으로 쫏처다니는 아스팔트우헤 그리여진 내검은그림자를 처다보고는 無秩序한妄想과 哀愁的인孤寂을 限업시 느끼여진다。

서울의夕陽은오히려 正午보다 더 더운것이다。寒暑에 다를 대로 다른 柴竹과、石壁그리고 煉瓦들이 그대로 뜨거운 熱을품겨 熔鑛爐처럼 모든事物를 찌고잇다。그러나 寒暑의나는 그러한다。『참대로 쩌보렴 설마 내살파뼈가 녹을소냐』하며 英雄처럼 벗티고 寫臺에서 寢所로 온다 그러하야 땀으로 沐浴한나는 洋服을벗고 內衣를 버서버리고 그대로 房안에쓰러저눕는다。그럴때마다 내故鄕의 黃昏을 그려본다 그러라 지금쯤은 이웃집 재돌이아버지는소(牛)를끌고 논두덕길로 겨러오며、대통(煙管)을 넘어든 담배연기를 저녁하늘저便에 엽게그려노리라 또이제쯤은 아래마을 꼿지는 蛇頭峰에올라와서 배꿉어볼두나온 배꼬라정이 동생과 꿈바집 매려간 어머니를 기두리고섯스리라。그리하야 논과바테 아니보다 大自然을征服하려 갓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도라오고 아이 불리는 젊은女人의 情다운 音聲과 終日疲勞한 소의 핑경소리저녁하늘의 布穀새소리와 해젓은 매암의 지친소리와 개구리、맹꽁이、社鵑새의 첫우름 이러한自然에 만드러준 交響樂團의 中間位置에서 건너집 순이는 콘덕러의役割처럼 시를멉는 코노래를 납틀래하리라 순이도 어여름은 유달리 支離하게 기다렷슬것이고 나도이여름을 넘무도 바갑게 기다렷든것이 그만 우리들사이는 보지못하는사이가되고말엇다。四年前 여름방학에 가가거고……를배우든 순이는 어제는『선생님전상서 배게……다른여름보다 이여름은웨? 췬신터 거름러젓고 그기다리는것이 부끄러운생각이 들어 때로는 눈울적군감고 기다리자하고는 밤마다 눈을감엇습니다。그러치만 외려 꿈에더욱 기틀리젓담니다。꿈에기틀리지는것은 더욱 괴로운일엽니다。그리자 잃어보니 선생님이 금년방학에는 못오신다는 말을 듯자 울고십도록 슬펏습니다。아니 참으로 세번이나 울엇습니다。참 부끄러운일이겟지요。선생님 나도 나려어와 洞里아이들이 여간 기다러고 열흘 습니다。우리동무 못니、서순이、꿋제、팔제、을욱이가만나서 놀어보앗지다면 우리저 열양(二兩)쯤 내여서 보내드릴가보다고 말도하엿습니다 나도 작년에주신 조선말소설은 다읽고 일본말로론 이습어야거도 다ー읽엇스니 금년에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문화전집도읽어보려고한것이 그만틀렷겟지요 그리고 선생님께 쑥떡(艾餠)하야 드릴양으로 쑥(艾)을 봄에만히 뜨더 말려노핫는데 그쑥파 내가출드리박어노흔 쌀은 쥐에서 쥐(鼠)조흥일만 시키나봅니다 서울은 더욱 더운곳이라하니 몸조심하시고 게서다。어화기도 열중으로 공부하시시요。유월(음)××날 순이올림』어런 便紙가왓다。어떤放學에는 마즈막 배울순이와그동무들이 너무도외롭하게 생각낫다。明年이나 금년가을에는 가마를라고 우리 마을에날러인 순이와그동무를…

나는四面일어나서 외처보다 무엇에게 외치는지도모르게 내故鄕을머리에그리면서 순이와그동무의 봄은당가 화날리는그리자를 幻覺하면서……어러하야 나의都市生活의하로를마추다 모기울음없는것이 원망스러웟다。그것은 모다불편 우리마을의亭子(鄕亭)가의이야기와 모다불가에서 우습소리는 마을夜學堂으로갓는 靈室이그리운까닭이다。나는언제나 어러한생각後는 순이와그동무들의 健康을빈다。끗

海……邊……隨……想

東京明治學院 鄭桂永

나는海邊에 修養하고잇다。

그것은 바다를조와하는 나로서 할수업는 일이엿섯다。그러나바다에노는것이고 뭇그럼다고 하잔숭수업는일은 내가 水泳을 조끔도못하는것이다。그저 풍덩풍덩이란말이다。그것뿐인가 나는原來부터 몸에 드러가지실천하는 자이니獸醫科에서 으더넘엉음은 아니나 恐水病者라고도 할던지 내스사로가 理解할수업는 내몸뚱이다。그러넛가 나는水泳하는 사람을보면서도"그사람잘한다"고 稱讚을할진저 조끔치라도 봄다터가 또는 배울려도하잔으니─다시말하면바다의 效果的眞意의 無關心한 나이다。동무가드르면 밥뜻어 얼골을한번 찡크리고 貧問에밀리듯하나 나는못그러타는 것보다 疑問을갓는 동무들이 도리혀 자미잇서뵈인다

나는事實上바다를조와한다。水泳도조라。땀과 疲困의짬긴몸을 靈海에 던저潮原을엇게하며 健康을保全하고 魚類의一觀을견는것도 愉快함뿐인가 다시금 모래장반에구불며 뜨거운日光을 全身에마저 黑黃을입은다는것도 좀조하하만그러나그보다는겄보다 나는 아침과 저녁의바다를 더ー조와한다。

참새지저귀는아침 머ー닝동트기전에 이불을거더차고 뿌락수에 幽靈모면면히바를세라 이불을닥근후는 海邊에 나서니─하늘하늘海棠꼿닙헤서 움직이는 아침이슬방울에도 一種의 感激을 늦기거니와 漁船이 우울 우울하는 靄은蒼海를건너머ー큰니동편에서이제나저때나 뜰까말까하는太陽에 神秘한光景을바래는것이 이엿저壯觀지아라고할까。나는이러한瞬間을타할때 참으로무어라고 表現할수업스리만큼 내精神이푹주잔코야만다。

저녁이나。아침에는 동트는 壯觀이求景스럽거니와 저녁엔 물결밀리는뒤를 고요히것는것이벌로 자미잇다。저녁먹고나 선비가오든안오든 밥뜻이바다를것는다。소슬히부러오는 東風을가로바드며 半月形인물여플거리도는것이 무한한깃븜이다。나는波濤와작란한다。파도는내가겉은 발자욱을씩처준다。나는또다시 그짓처준뒤를 거르면 波濤는 여전히 밀려드리와 나의어지러운 발자욱을씻처준다。나는 공궁히이일을年年해본다。그럴때마다 나는스사로무엇인가 깨달음밧는 感이커진다。이世上에모ー든어지러운 過去를깨끗이씻처준다ー사람에 맘을뒤엇처주는물ー나도모르게수풀를물줄때가 한두번이아니다

나는海邊에서 修養하고 잇다 나는이러한日課를每日거듭하고 잇다。이것도바다를조와하는理由인一部分의要因이되려는가?

時調……二人輯

農村樸詠

法專 姜敏熙

三伏절 뙤약볏에 김매는 저분들아
紅塵에 허덕이는 都會人士 부러마소
金風이 부러오면 黃腹擊壤 승길이라

綠陰속 노괴안저 노래하는 저매암아
더위를 네알조가 근심걱정 네關하료
어世上 神仙이란 도분인가 하노라

暗暗漆夜 暖暖우에 빤짝빤짝 반디때야
淸光이 玲瓏하야 流星에 비기련들
旱魃이 이업스니 부즐업서 셔는고야

푸른수풀 날흙삼고 누런것을 씨로삼아
淸黃緞 고히짜는 퐈퐈아씨 북소래야
담배밧 綿道솔어 한번듯고 열삐지리

溪流

晉州公中 金洪燦

뛰다가 넘어지면 일어나 다시뛰고
부딧처 흐러지면 넘어서 다시뭉켜
千里라 아득한길을 밤낫업시 가리라

라달리고 부딧치고 부딧처 또달리고
마음껏 뛰여가고 힘껏 달려가서
그리든 故鄕山川을 가리찻어 가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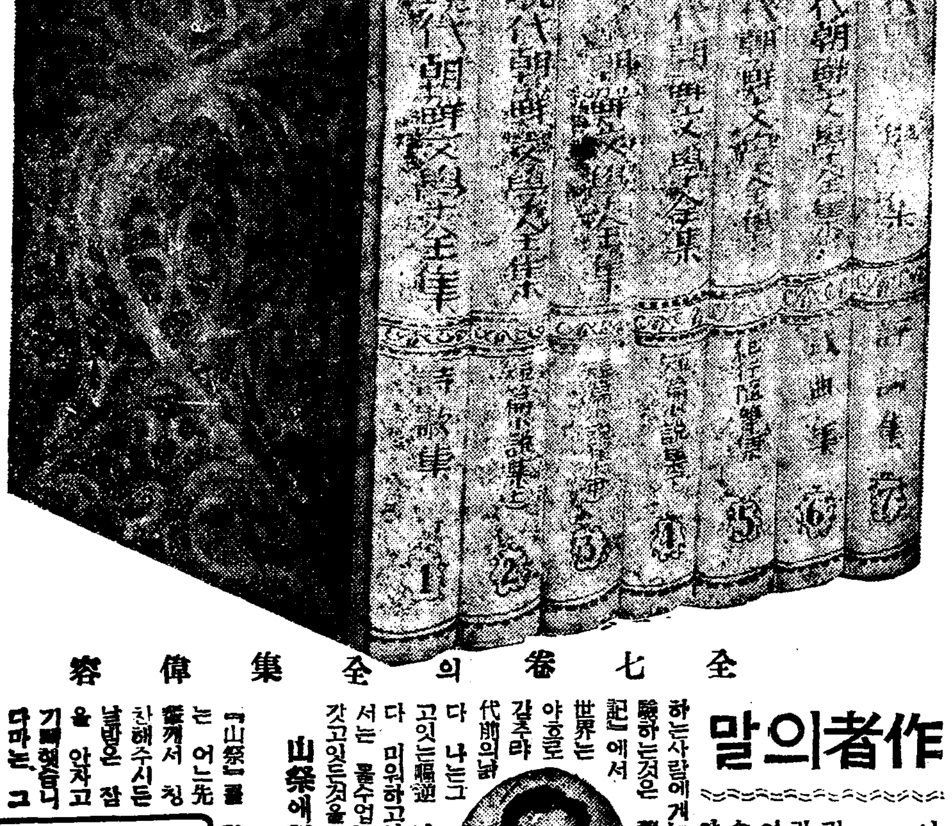
달빗을 등에실고 출러렁 구울러서
바위도 밀어내고 泰山도 돌어내여、
大洋에 못처지킬을 다려와도 자리랑。

新刊紹介

▲慶北老會敎會報 八月號 發行所 大邱府南山町五 慶北老會敎會報社 振替釜山八七八七番 定價一部五錢

▲三千里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三千里社 振替京城一二四九番 定價五十錢 送料三錢

▲四海公論 八月號 京城府竹添町二丁目一〇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三錢



全七卷의全集偉容

現代朝鮮文學全集 短篇集 ㊦ 第六回配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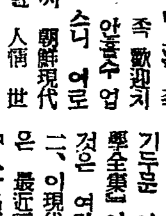
短篇小說陣의精銳部隊 百花燎亂의最高傑作

「現代朝鮮文學全集」은 決河의勢로써 全朝鮮讀書界를 席捲하여 一回配本으로부터 五回配本까지 再版三版이 出來하는等 未曾有의 部數가 賣盡되는中이제다시 第六回配本으로「短篇集(下)」가 出刊되여 滿天下의 人氣를 이 卌한卷에 모호게되엿다 이短篇集은 文壇重鎭 十三氏의 가장自信잇는 傑作을 收錄하니만치 그流麗한 筆致와 透視綿密한「構想」은 朝鮮現實社會를 描破한「파노라마」여서 實로 우리文壇의 最高傑作集이 아닐수업다 滿天下讀者는 切版前 速히 注文하라

第一回配本 短篇集(上) 三版發賣中
第二回配本 詩歌集 三版發賣中
第三回配本 短篇集(中) 再版發賣中
第四回配本 隨筆紀行集 再版發賣中
第五回配本 評論集 再版發賣中

大好評의 短篇集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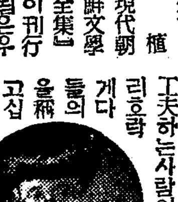
朝鮮文學의全輪廓 鄭芝溶



文學에 마오는 족 족 歡迎치 안흘수 업스니 어로써 朝鮮現代에 對한 人情 世態 山水 地理가 一時之下에 收拾키에 틔녀한까닭이다。特히 上中下短篇小說集으로서 朝鮮文學의 慘憺한過程을 살필수잇고 燦然한未來를卜할수잇스니 文學的朝鮮의特質은 아마 短篇小說에 凝縮結晶된것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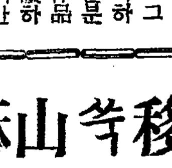
一、우리社會에잇서서 우리文士들의 朝鮮말로쓴 全集이우리손으로 出版된것을보기는 이때에『現代朝鮮文學全集』이 꾸준이나오게된것은 여간기뿐일이안입니다 二、이現代『朝鮮文學全集』은 最近三十年間新文學作品中八十名文人의 最高傑作을精選하여 蒐集한바이매 實로雄文巨筆임에 틀림이업서 讀書界를 위하여 기뻐하는바입니다

雄文巨筆의全集 曹晩植



『現代朝鮮文學全集』이 刊行되온우리社會에잇서서 實로 큰기쁨의하나가 되지안흘수업습니다 나는이제 이기쁨의하나가 되지안흘수엿습니다 나는 이기쁨을 다음과 가티 생각합니다

珠玉가튼名作集 朴泰遠



文人相輕自古而然이라는말이잇습니다。저도 글짓기를 工夫하는사람의하나로서 그러케 호락호락하게다 들의作品을稱讀하고십지안은 그래도儼然한 事實아페서는 어찌하는수가업습니다 短篇集上、中 두卷도 그러하엿거니와 어번下卷에 收錄된 열세분의作家도 平素에 제가敬慕하여마지안든분들로 廉想涉先生의『불똥』으로부터 故崔鶴松先生의『脫出記』에이르기까지 어느한篇이라 珠玉에비길 名作아닌것이업습니다。

短篇集(下)目次
불똥─廉尚燮
滄浪亭記─兪鎭午
牛心─李無影
B舍監─玄鎭健
脫出記─故崔鶴松
사랑손님과어머니─朱耀燮
苦行記─金末峯
移鄕─故李益相
쑥국새─蔡萬植
山祭─崔貞熙
麻藥─姜敬愛
無限愛─全武吉
逆說─崔明翊

作者의말

이야기마는小說 兪鎭午

『滄浪亭記』는「이야기」업는小說을 써보려는 나의첫試驗이다 ─그래 이야기가업다는것은우수한이나 나가티어야기업시는 運筆이곳 에끈처려 올들엇습니다 ─그랫더니 그만 막우 릴번햇습니다 무리잘되거나하고 생각을들녀봐야 『山祭』는 역시缺點투성이의小說입니다。多幸히 제글을 읽어주실분이 계셔서『山祭』를 읽으신다면 저는 그때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있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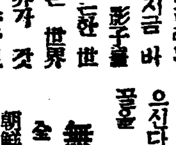
山祭에對하야 崔貞熙

『山祭』는 어느先生께서 칭찬해주시든 날밤은 잠을 안자고 기뻐햇습니다 다마는 그『山祭』를 잘봐다고 제가조하다。

無限愛 全武吉

朝鮮日報의 要求로쓰든것이다。나의 敎育觀을 그리려햇다。勿論興味의有無는 問題外다。敎育家의 態度가 이랫스면하고 쓴 것이다。그外에는 別로 쓸말이업다。

代前의나 世界는 갓주랴 世界가 갓다 나는그 고잇는醜惡 나는醜惡相을 누구보다 미워하고잇스나 同時에現代에서는 볼수업는聖潔한美와 崇高를 갓고잇는것을 無視할수가업다



四六版三百九十餘頁의大冊 洋裝크로쓰美本 一冊一圓二十錢 書留送料廿二錢 一時拂七圓(送料本社負擔)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今日發賣